

# 韓國 大學圖書館學科의

## 教育課程에 關한 研究

姜 富 弼 ☆

### 제 1 장 序 論

圖書館學은 圖書館을 對象으로 하여 體系의으로 組織된 知識의 綜合을 目的으로 知識과 情報의 根源이 되는 여러가지의 資料를 蒐集, 整理, 保存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利用을 目的으로 하는 奉仕의 機能을 發揮하기 위해 理論面과 運營面에 대해 學文的 構成을 이루는 것이다. 즉 圖書館學은 人類文化에 獻身할 모든 資料를 教育化, 學術化, 社會化 및 科學化 하기 위한 科學的 方法을 擇하여 圖書館에 관한 모든 事況을 研究하는 社會科學의 範疇에 들어가는 學問이다<sup>1)</sup>.

이와 같은 圖書館學이 우리 나라에 導入된 것은 불과 20여년에 불과하며 日本과 같이 美國圖書館學의 影響을 다분히 받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동안 상당수의 圖書館 학도가 제각기 專攻分野를 택하여 圖書館學의 理論的 體系確立을 위하여 많은 研究를 해왔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도돌이켜 보건대 그간 도서관학의 實務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國內의 圖書館學 教育은 美國으로부터 導入당시의 教育類型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바 이제는 구태의연한 教育方法을 과감하게 지양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教育課程의 土臺를 마련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느껴진다. 말하자면 近代化 課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文化的 技術的 社會現象에 適應되는 方向으로 教育課程이 改善되기 爲하여서는 效果的인 學習經驗의 計劃과 指導, 그리고 評價를 中心으로 하는 機能的인 理論 體系의 樹立은 時急을 要하는 問題이다<sup>2)</sup>.

教育課程 構成은 人間變化에 直結되는 學習經驗에 直接關與하기 때문에 教課育程의 質은 곧 教育의 質을 決定하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이러한 教

☆ 成大司書教育院, 서라벌 藝大講師  
全國學校 圖書館部會理事

1) 任鍾淳: 圖書館學概論.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9. 11—13.

大佐三四五: 圖書館學의 展開. 東京, 丸善株式會社, 1954. p. 2.

石塚正成: 圖書館通論. 東京, 明治書院, 1966. p. 16.

2) 李榮德: 教育의 質의 問題와 教育課程再構成(教育과 國家發展 第15章)

3) 教育出版社, 1969. p. 309.

3) 李榮德, 上揭書, p. 289.

育課程改善을 위한 研究는 그 作業의 性格上으로 보아 많은 人的資源의 動員과 充分한 理念 및 經驗의 資料를 土臺로 하는 綜合的인 作業을 必要로 할뿐만 아니라 단 한번의 실시로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항상 週期的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大學校의 圖書館學科를 對象으로 하는 教育課程의 研究는 우리나라에서 最初의 시도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研究는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 實態를 개관하고 그 改善을 위한 일반적인 提案을 함에 불과하나 教育課程의 계속적인 改進黨을 위한 協同的인 努力의 첫 단계로서 하나의 探究的인 性質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 앞으로 이 分野에 대한 보다 集中的인 研究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즉 出發부터 現在까지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圖書館學 教育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 만족할만한 問題 解決點에 途達하기 위한 일 研究로서의 大學圖書館學科 教育課程에 관한 諸 問題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 제 1 절 研究의 目的

“Galbraith의 말대로 教育에는 計劃이 있어야 投資가 되고, 計劃이 없으면 浪費가 될 可能性이 더 많다”는 理論과 마찬가지로 先進國의 教育制度, 教育政策, 教育課程, 教育內容, 教育方法 등을 直輸入해 온에서오는 教育의 浪費를 방지하고, 理想을 품으면서도 現實위에 創意的으로 構想한 것으로서의 計劃이 要望되므로<sup>4)</sup> 본 연구는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組織, 運營에 대한 實態를 綜合的으로 分析, 評價하여 教育課程에 관한 제반 정책을 改善함에 있어서 指針이 될만한 資料를 提供하고자 하며 특히 지금까지의 不合理한 점등을 시정하고 現實에 적합한 專攻領域別 教育課程 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면에 그 具體的 目的이 있다.

- 1) 우리 나라 大學圖書館教育이 發達해 온 過去, 現在 및 未來의 전망을 토대로 圖書館學 教育의 本바탕을 정의해 본다.
- 2) 圖書館學科 教育課程 構成의 領域別 體系를 整理 제시한다.
- 3)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運營과 行政實態를 調査·分析하여 問題點을 發見 整理한다.
- 4) 現行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이 國家發展에 대한 기여도를 分析評價한다.

4) 鄭範謨: 教育과 國家發展. 教育出版社. 1969. pp.24-25.

J.K. Galbraith, Economic Development in Perspectiv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2. p. 20

5) 圖書館學科 教育課程 改善에 實質的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教育課程 시안을 작성한다.

6) 圖書館學科 教育課程에 관한 課題를 정기적으로 연구 검토할 수 있는 自發的인 圖書館學科 協議體의 組織 可能性을 模索한다.

이상의 제목적하에 이루어진 본 연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면에서의 改善發展을 촉진 시킬 것이다.

1) 정부당국의 圖書館教育에 관한 새로운 政策樹立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각 大學의 教育課程에 관한 運營진반에 걸친 독자적인 改善方案을 模索하는데 촉진제의 역할이 되도록 한다.

3) 各 大學의 教育課程에 관한 부단한 改善과 向上을 위한 個人 및 共同研究를 자극 유발케 한다.

## 제 2 절 研究의 範圍

### 1) 教育課程의 領域

본 研究에서 취급되는 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에 關한 文獻研究는 現在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學科 教育課程 資料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組織 領域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 ① 圖書館學科의 一般目標
- ② 圖書館教育의 制度問題
- ③ 圖書館學科의 專攻領域別 教育課程
- ④ Information Science
- ⑤ 圖書館 教育의 近代化問題

### 2) 教育課程 試案作成

教育課程의 改善方案을 模索하는데 가장 役점을 두고 여기서는 問題點을 研究, 分析하는 데 그치지 않고 專攻領域別 教育課程의 試案을 아울러 作成코자 한다.

이 試案은 實態分析과 實際 圖書館系의 要望을 土臺로 해서 作成된 것이므로 정부당국이나 大學이 教育課程의 改善策을 마련코자 할 때 具體的인 參考의 예로 利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는 研究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예시적인 試案에 지나지 않을 것이므로 장차의 研究檢討와 論議가 계속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제 3 절 研究方法 및 對象

圖書館學科가 지향해야 할 일반적인 教育目標과 運營上에 야기되는 모든 問題點과 그 改善策을 模索하기 위한 탐색작업의 일환으로 教授와의 面談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作成된 質問紙의 설문 내용에 대한 意見을 蒐集, 整理하고 4個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과 학칙상의 問題를 비롯한 關係資料의 檢討를 통해 共同協議體의 組織可能性을 探索하고 學科設定이래 이렇다 할 批判과 檢討없이 그대로 運營되고 있는 教科課程에 대한 是正策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各種 機關에서 실시한 講習會나 特殊課程을 제외한 學部課程에 관한 問題를 中點的으로 論하고자 하며 圖書館教育의 質的 向上과 祖國近代化 과업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둔다.

#### 1) 質問紙 調查期間

70년 9월 1일~10월 15일 (45일간)

#### 2) 質問紙 調查對象

各大學 圖書館學科 在學生

#### 3) 質問紙 調查方法

質問紙 使用方法에 의한 間接調查方法

## 제 2 장 圖書館學 教育實態의 考察

오늘날 社會情勢의 복잡화에 따른 많은 資料의 蒐集, 整理, 管理 등의 복잡화 및 신속 精確한 知識 전달이라는 技術的 奉仕의 다양화로 인하여 圖書館의 教育的, 文化的 機能을 원활하게 하고 科學的 方法을 研究하기 위한 教育이 必要하게 되었으며 現代社會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圖書館이 모든 學問의 研究資料를 提供함에 따라서 그 자체 學問의 體系化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圖書館學이 發展되어 왔다.

現在 全世界를 通하여 약 400여개의 教育機關에서 學士, 碩士의 資格이나 學位를 授與하고 있으며 美國에서는 美國圖書館協會(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 인정한 31개의 圖書館學校를 포함해서 圖書館學을 訓練하는 教育機關이 244개나 되며<sup>5)</sup> 1958~59년에 미국의 95개 高級教育機關에서 1967 명에게 圖書館學 學位를 授與했고 1957~1970년까지 12

5) American Library and Book Trade Annual. New york P.R. Bowkenco. 1963. p. 230.

년간에 3,710명의 圖書館學 학생이 졸업한 실정이다<sup>6)</sup>.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는 圖書館學이 導入된지 20여년간에 國內大學에서 碩士學位 取得者가 約 20여명에 불과하며, 학사는 1961~69년까지 총 720여명에 달한다. 그리고 1년과정 修了者는 304명<sup>7)</sup>으로써 이와같은 현상은 발전도상에 있는 低開發國家의 共通된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제 2차 世界大戰 後에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든 學問이 그러했듯이 圖書館學에 있어서도 그 體系와 方法論을 해외의 이른바 先進國에서 導入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自由陣營에 속하는 發展道에 있는 나라들은 대체로 美國을 背景으로 發展되고 있는 圖書館教育의 類型을 거의 그대로 踏襲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그러므로 현재의 도서관 교육에 대한 비판의 기능성과 그 개선책을 강구해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 제 1 절 圖書館教育의 由來

우리 나라가 8·15解放이 되고 나자 政府當局은 學校教育이 긴급한 당면 과제로 대두하게 되어 圖書館의 증설 문제가 관계기관에 의해서 論難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서 社會教育機關인 圖書館을 運營할 專門職司書의 教育이 必要하게 되던중 그 당시 國立圖書館의 이재욱, 박봉석<sup>9)</sup> 두 분의 노력으로 우리 나라 최초로 1946년 3월 19일자로 國立朝鮮圖書館學校의 設立認可를 얻어 1946년 4월 1일에 國立圖書館(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開校式을 갖게 된 것은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 專門職 教育機關의 設立을 본 것이며 歷史적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 教育의 첫 出發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발된 國立圖書館學校의 授業年限은 1년이었으며 本科 및 別科(위탁생 포함)을 두었고, 학생중에는 급비생 제도가 있었는데 급비생은 졸업 후 2년간 국내 관, 공, 사립 圖書館 및 校長이 인정한 文化機關에 從事할 의무가 規定되어 있으며 學科課程 및 授業時間은 표-1과 같다.

6) 임종순, 전제서, p. 64

7) 박희영, 한국의 사서교육(1), 도서관, 1969, Vol. 24, No. 8 pp. 7-9.

8) Lohrer Alice and Lackson, William Vernon,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Asia' the Near East and Latin America Library Trends. Vol. 8, No. 2, 1959.

9)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도서관계에 많은 공헌을 한분(6.25당시 남치)으로서 박봉석씨는 조선십진분류표를 편찬하였다.

과 목	시 간	과 목	시 간
도서관관리법	2	사회교육개론	2
도서관사	1	국사	2
도서분류법	2	의국사	1
등서편목법	3	국어및국어사	2
등서편목실습	2	국문및국문사	2
서서편목법	1	한문학	2
서서편목실습	2	문학개론	2
서지학	2	의국어(영, 독, 불)	4
인쇄및제본법	2	매주수업총시간수	34

자료: 임종순, 도서관학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7. p.77.

그러나 同校는 1946년 4월에 開校하여 1950년 5월까지 제 5회에 걸쳐 卒業生 77명을 輩出하였으나 6.25사변으로 중단된후 그 당시 國立圖書館과 朝鮮圖書館協會가 共同主催하여 1947~49년까지 國立圖書館에서 관리법, 도서분류법, 등서, 양서, 목록법 및 특강등의 도서관 司書講習會<sup>10)</sup>가 있었으며 6.25사변이후 戰亂으로 흐트러진 全國圖書館運營을 재 整備 강화하기 위한 강습회가 1954년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총 108시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 당시의 과목중 특기한 사실은 1949년까지의 강습회에서 실시되지 않던 參考業務와 特殊資料 整理法의 강의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講習過程을 통하여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서 圖書館教育을 전담할 教育機關으로서 大學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기 시작하였으며 圖書館學科가 設置된 후에도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이와 같은 강습은 계속되고 있다.

## 제 2 절 大學圖書館學科의 設置過程

沈滯일로에 놓여 있던 圖書館계의 부흥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의 첫 출발이 1956년 10월에 내한한 美國教育 사절단 Peabody 팀(피바디사범대학교수단은 1962년 8월 해체→본국귀국)이 한국 도서관계의 요청에 의하여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同 大學內에 附設한 韓國圖書館學校(후에 도서관학당으로 개칭)를 1957년 4월에 개설한 것을 始初로 하여 國內 最初의 正規大學機關으로 學部圖書館學科 및 大學院 과정을 同時에 設置한 것을

10) 임종순, 전제서. pp. 77-79.

기로 1959년 4월에 梨花女子大學校 文理科大學 人門學部에 圖書館學科를 設置하였다. 이에 앞서 1956년부터 이미 大學課程 圖書館學 講座를 副專攻으로 문리과대학에 설치하였다. 이것은 大學에서 圖書館學을 選擇科目으로 강의하기는 최초의 일이며 이 과정은 1959년에 정식으로 도서관 학과가 발족함과 동시에 폐강되었다. 대학원 과정도 연세대학교와 같이 도서관학과의 발족과 같은 해인 1959년에 동시에 신설하였다.

그리고 圖書館教育의 必要性和 圖書館에 대한 認識이 달라짐과 때를 같이해서 中央大學校가 文科大學에 圖書館學科를 1962년에 신설하였으며 成均館大學校는 1964년에 圖書館學科를 신설하고 1965년에는 1년 과정의 韓國司書教育院을 개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現在까지 총 4개 綜合大學校에 설치된 도서관학과의 입학 자격은 一般大學 學科의 入學資格과 같은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로서 대학입학예비고사에 합격한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규정되어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文學士學位와 正司書의 資格證을<sup>11)</sup> 수여하며 교직과목 이수자에게는 별도의 司書教師의 자격증을 주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대학교육 기관을 통하여 圖書館專門教育을 이수한 자는 표-2와 같다<sup>12)</sup>.

표-2. A

학부과정 졸업생수

기관명 년도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회	수	회	수	회	수	회	수
1961	1	12						
1962	2	18						
1963	3	24	1	57				
1964	4	30	2	50				
1965	5	30	3	48				
1966	6	29	4	29				
1967	7	29	5	51	1	33		
1968	8	37	6	59	2	24	1	39
1969	9	30	7		3	13	2	19
1970	10		8		4		3	13
1971	11		9		5		4	12
계		239		353		70		83

11)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2항

12) 박희영, 견게서, p.7.

표-2. B

1년과정 졸업생수

기관명 년도	국립도서관학교		연대 1년과정		연대 토요과정		성대사서교육원	
	회	수 졸업생수	회	수 졸업생수	회	수 졸업생수	회	수 졸업생수
1946	1	20						
1947	2	10						
1948	3	19						
1949	4	14						
1950	5	14						
1953			1	15				
1959			2	15				
1960			3	32				
1961					1	37	1	47
1966							2	28
1967							3	32
1968							4	26
1969							5	22
1970							6	24
1971							7	30
계		77		62		37		209

표-2. C

석사학위 과정 수료자

년	기관명	연 세 대 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1959		1	
1960			
1961			6
1962		1	
1963		3	2
1964		1	
1965			1
1966		1	
1967			2
1968			
1969			1
계		7	12

그 이외에 각 師範系大學에서 장차 제 2세 國民의 教育을 담당할 師範大學 및 教育大學의 學生들에게 圖書館學課程을 수강토록 한것은 釜山教



育大學에서 (63년, 64년 중단→그후 다시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활→65년 이후 필수 과목) 1962년부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하여 1964년에 公川師範大學에서 1965년에는 서울 教育大學에서 圖書館學講義를 시작 하였으나 講義內容은 各學校의 特殊性에 의하여 釜山教育大學이 學校圖書館을 週當 1시간 기준으로 1학년 全員에게 公州師範大學에서는 圖書館學概論을 주당 2시간으로 2학년 全員에게 그리고 서울교육대학은 學校圖書館運營을 주당 1시간으로 2학년 全員에게 실시하여 현재까지 3개 사범계 대학에서 圖書館學을 이수한 수강자 총 수는 2,060명(서울교대 1,200명, 공주사대 150명, 부산교대 710명)에 달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정책 입안자의 편견과 무성의로 점차 그 과정이 경시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도서관계를 위해서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제 3 절 各國의 圖書館學教育實態

#### 1) 圖書館教育의 心性

도서관은 施設, 資料, 專門職員의 3가지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이 3가지 요소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중 어느 하나의 기능이 마비되어서는 본래의 教育目的을 達成할 수 없으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도서관인(전문직원)이다. 그것은 圖書館資料의 技術的 整理를 통해 도서관 이용자와 圖書館資料와의 中間에서 教育的 機能을 수행하여 주는 촉매 역할의 담당자가 도서관인이기 때문에 圖書館專門職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圖書館教育이 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圖書館教育에 대하여 L. A. C Hesse는 1841년에 그가 著述한 *Biblioth Economie*에서 “오늘날 圖書館 專門職이 박학하여야 할 것이 처음에 생각하던 것보다 한층 重要視되고 있다. 學識은 가능한한 專門的이어야 하며 각 分野에 專門的 깊이로 精通하기를 要求하기는 어려우나 각 학과에 대해서 전혀 門外漢이 안 되게 적어도 充分한 이해를 所有할 것을 必要로 한다<sup>14)</sup>”라고 말하고 있다.

現代와 같이 資料의 洪水를 만난 圖書館이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도서관에 대한 專門知識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 하기 때문에 專門教育은 절대로 必要한 것이다.

13) 임종순, 전게서. pp. 84—85.

各師大와 教大의 教育課程分析結果 및 同大學卒業生數 및 學科目履修者를 合한 것.

14) 大佐三四五, 전게서. 1954. p. 18.

美國에서도 얼마전까지는 圖書館 職員 養成을 단순히 整理, 技術習得에 목표를 두었으나 社會의 進步發展에 따라 專門教育機關을 設置하고 科學的, 學術的 研究를 통한 專門職養成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은 一般教育을 받은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圖書館 教育效果는 증대되는 것이므로 圖書館 教育機關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일발 大學教育課程에 보다는 오히려 大學院課程에 重點을 두고 전문직 종사자를 교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入學資格도 대학 2년 修了者나 大學卒業者로 그 수준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과정이 중심이 되어 運營되고 있는 현실로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 대학원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서직의 專門性이 강조되고 大學院課程의 圖書館教育에 대한 요망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1969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圖書館國際會議<sup>15)</sup>를 계기로 이에 대한 社會的 要望이 더욱 절실해지자 圖書館學科와 司書教育院을 設置하여 우리 나라의 司書職 專門教育과 도서관 발전에 기여하여 온 성균관대학교가 위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호응하고자 대학원 과정의 도서관학 석사과정을 설치하여 6명의 도서관석사를 배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東·西洋 各國의 教育實態는 편의상 약하고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實態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教育實態

우리 나라에 日本과 같이 美國圖書館學의 영향을 받은 現代의인 의미의 圖書館學이 導入된 것은 20여년에 불과하고 圖書館員의 養成을 위한 教育도 단기강습에 지나지 않았으며, 1946년 現職圖書館員의 教育을 위하여 이재욱, 박봉석 양씨의 努力에 의한 國立圖書館內에 圖書館學校를 設置하여 圖書館教育을 실시한 것이 圖書館教育의 始初가 되며 1955년 梨大 이봉순 교수가 敎養學部에 選擇科目으로 圖書館學講座를 開設한 것이 韓國大學에서 實施된 最初의 圖書館教育이었으나 그 과정도 正規 圖書館 教育課程은 아니었다. 그후 圖書館協會가 創立되어 圖書館人 專門教育의 긴박함을 절감하여 단기과정으로 실무자 강습회를 실시하여 오다가 2년후인 1957년에 비로소 연세대학교에 대학으로서는 처음있는 정규과정으로 學部課程 圖書館學科를 新設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圖書館學에 대한 認識을 가일층

15)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 도형월보, 1969. Vol. 10 No. 4  
국제회의는 1969. 5. 28. -1969. 5. 30까지 한국아카데미하우스에서 개최되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뒤를 이어 1959년에梨花女大, 1963년에中央大學, 1964년에成均館大學에서 각각正規課程의圖書館學科를 설치하여圖書館專門職養成機關의不足을 해결해 주게 되었으며 일부師範系大學에서도 후진養成을 위한 교사를 대상으로圖書館學을講義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各教育機關의圖書館學研究의 방향을科學的인 조사연구라기 보다는 사회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技術的인問題처리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나라대로의圖書館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圖書館學의理論體系確立은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各大學圖書館學科의教育課程을 살펴 보자.

① 延世大學校

㉠ 學部課程

1957년에文科大學에 I. C. A의 주선으로 미국 피바디사범대학교육사절단의 도움으로圖書館學科가新設되어高等學校卒業者(예정자) 및 이와同等한以上の學力이 있다고認定되는者가入學하여卒業時에는文學士의學位와圖書館法의規定에 의해正司書의資格이 부여되고 있다.在學中교직과목을 이수한자는 졸업과 동시에司書教師의資格이 부여되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매년 30명 한도로서 1961년도(제1회)부터 1968년도(제9회)까지의卒業生수는 235명이며教育課程은 표-4와 같다.

표-4 연대 도서관학과 교과과정표

학 년	과 목 종 별	학 정 번 호	과 목 명	강의 시간수		학점수
				강 의	실 습	
2	전 필	도 204	도서관학 통론	3		3
	"	" 202	동양전적해제	3		3
	"	" 201	한국전적해제	3		3
	전 선	" 251	아동도서	3		3
	"	" 252	음악감상	2		2
	"	" 253	미술감상	2		2
	"	" 254	타 자		4	
	"	" 255	초급일본도서 I	3		3
3	"	" 256	" II	3		3
	전 필	" 301	도서관의 조직과 관리	3		3
	"	" 302	자료의 선택	3		3
	"	" 305	분류와 목록법 I	3		3
	"	" 306	" II	3		3

3	전 필	도 307	참고봉사	3		3
	전 선	// 351	학교도서관봉사	3		3
	"	// 352	인문과학서지	3		3
	"	// 353	도서관사	3		3
	"	// 354	도서 및 인쇄사	3		3
	"	// 344	서 지 학	3		3
	"	// 356	고급일본도서 I	3		3
4	"	// 357	" II	3		3
	전 필	// 402	도서관실습	2주	간 동안	교의실습
	전 선	// 451	대학도서관봉사	3		3
	"	// 452	공 공 "	3		3
	"	// 453	사회과학서지	3		3
	"	// 454	자연과학서지	3		3
	"	// 455	비책자자료의 조직	3		3
	"	// 456	목록의 특수문제	3		3
	"	// 457	도서관봉사의 특수문제	3		3
	"	// 458	음영자료	3		3
		계			84	

⑤ 大學院課程

大學院 課程의 入學資格은 學部 圖書館學科 卒業者 및 4년제 他科를 卒業하고 圖書館學에 관한 學點을 30학점이상 취득한 자로되어 있다. 大學院에서는 24학점 이상의 專攻科目을 이수하고 卒業論文을 提出하여 심사 에 통과되어야 文學碩士를 수여하게 된다. 1966년까지 7명의 碩士를 배출 한 이 大學院의 과정은 표-5와 같다.

표-5 연세대학교대학원교과과정표

한국서지학의 제문제	한국서지학
Colon 분류법	대학도서관행정
도서관철학	공공도서관행정
분류, 편목제미너	도서관학의 특수문제
논문작성법	명, 청의 총서
한적서지제미너	특수도서관의 업무
한국도서관관리의 특수문제	Documentation

⑥ 高級司書 1年課程

이 1년과정은 당시 圖書館의 증건간부로 다년간 종사하고 있으나 圖書 館學의 學의배경을 제도의 不備로 획득치 못한 자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 과정에 入學資格은 大學을 卒業하고 현재 圖書館員으로서 圖書館實務 經歷을 3년이상 가진 자여야 한다. 이 과정은 초기의 3회까지는 주간과정 이었으나 1960년 4월 2일부터는 이를 토요일에만 개강키로 하였으며 현재 는 야간과정으로 되어 있다. 이 課程의 教授科目과 學點數는 다음과 같다.

표-6 연세대학교 1년과정 교과과정표

과 목	학 점	과 목	학 점
분류와 목록법 1	4	분류와 목록법 2	4
참고봉사	3	주제별서지	3
도서 및 인쇄사	1	비책자자료	2
도서관사	1	시청각자료	2
한국 전적해제	2	동양전적해제	2
도서관학원론	2	도서선택	2
도서관봉사의 조직	2	도서관봉사 특강	2
과 관 리			
계	15		17

② 梨花女子大學校

④ 學部圖書館學課程

1959년 4월에 文理科大學인 文學部에 圖書館學科를 設置하고 入學資格 은 女子高等學校卒業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을 가진 자로서 卒業生에게는 文學士의 學位와 正司書資格이 부여된다.

모집인원은 1959년부터 1962년까지는 50명이었으며 1963년 教育에 관한 입시특례법에 따라 30명이 되었다가 1964년부터 現在까지 50명 정원으로 되어 있다. 1968년도(제 6 회)까지의 卒業生數는 총 292명이다. 現在 敎科 科目은 표-7과 같다.

표-7 이화여대 도서관학과 교과과정표

학 년	전 공 과 목	학 점	학 년	전 공 과 목	학 점
1	도 서 관 학 개 론	2	3	타 자 술	2
	도 서 관 사	2		서 서 분 류 편 목	3
	한 문	4		동 서 분 류 편 목	3
	분 류 학 개 론	2		도 서 선 택	3
	목 록 학 개 론	2		학교도서관조직과운영	3
2	원 서 강 독	6		공공도서관조직과운영	3
	한 문	4		아 등 도 서 선 택	3

도 서 관 과 사 회	3	인 문 과 학 서 지	2
비 도 서 자 료	3	Documentation	3
원 서 강 독	3	시 청 각 입 문	3
참 고 자 료 및 참 고 사 무	3	한 국 서 지	3
서 적 및 인 쇄 사	3	청 소 년 문 학	3
대 학 도 서 관 조 직 및 운 영	3	중 국 서 지	3
서 지 학	3	실 습	4
사 회 과 학 및 자연 과학 서 지	2	계	87

※ 대학안내 : 이화여자대학교, 1966. pp.66-68.

표-8 이화여자대학교원과정

	과 목	시 간	학 점
1	도 서 관 학 사	3	3
2	한 국 서 지	3	3
3	고 급 분 류 목 록	3	3
4	도 서 관 의 제 문 제	3	3
5	Documentation	3	3
6	출 판 문 화	3	3
7	세 미 나 (A)	1	1
8	" (B)	1	1
9	" (C)	1	1
10	" (D)	1	1
11	Research course (A)	2	2
12	" (B)	2	2
13	실 습 (A)	2	2
14	" (B)	2	2
	계	30	30

※ 대학안내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과정, 1968. p.129.

⑤ 大學院課程

大學院課程도 1959년 學部課程과 同時에 新設되었으며 入學資格은 4년 제 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1967년까지(제 5회) 11명의 碩士를 배출한 同 大學의 敎科課程은 표-8과 같다.

③ 中央大學校

1963년에 文科大學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었다. 入學資格은 高等學校卒業者(예정자) 및 이와 同等 以上の 學歷을 가진 者이며 졸업시 文學士와 正司書資格을 부여한다. 그리고 교직과목 이수자에게는 社會科(일반사회)

2급정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 1967년도(제 2 회)까지 58명이 졸업했다. 이 학과의 교과과정은 표-9와 같다.

표-9 중대도서관학과 교과과정표

구 분	학과목번호	과 목 명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필	전	도 101-102	2	2							4		
		도 210			2						2		
		도 204					3				3		
		도 205-206			2	2	2	2			8		
		도 207			3						3		
		도 210					3				3		
		도 211			2	2					2		
		도 213-214			2	2					4		
		도 216									2		
		도 304							3		3		
수	공	도 305					3			3			
		도 307					3			3			
		도 305						3		3			
		도 309					2			2			
		도 213					3			3			
		도 306						3		3			
		도 310					2			2			
		도 308						3		3			
		도 311						3		3			
		도 401							2		2		
과	필	도 403-402							2	2	4		
		도 405							2		2		
		도 313					3				3		
		도 407							3		3		
		도 404								3	3		
		도 410								3	3		
		도 409							3		3		
		목	수	도 409								3	3

※ 선택 교과목 문과대학 공통선택과목 및 타학과 전공과목에서 선택할 수 있다.

※ 대학안내 : 중대, 1966-67, p. 60.

표-10

성대도서관학과 교과과정표

학 년	교 과 목	매 주 시 간		년간학점	비 고
		1 학기	2 학기		
1 학년	도서관학개론	3		3	
2 학년	분류법 I	2	2	4	> 중 택 일
	목록법 I	2	2	4	
	고문서구독	2	2	4	
	참고업무자료	3		3	
	도서관사		3	3	
	원서구독	2		2	
	인문과학서지		2	2	
	미술사	2		2	
음악사		2	2		
초급일본도서		2	2		
3 학년	근대한국주제별사료	2	2	4	
	도서선택론	3		3	
	도서관운영론		3	3	
	분류법 II	2		2	
	목록법 II		2	2	
	서지학개론	2		2	
	한국서지		2	2	
	중급일본도서	2		2	
고급일본도서		2	2		
4 학년	중국서지	2		2	
	Documentation		2	2	
	비도서자료	2		2	
	시청각자료		2	2	
	학교도서관	2		2	
	공공도서관		2	2	
	특수도서관	2		2	
	대학도서관		2	2	
	고서목록법	2		2	
	도서관학(특수)		2	2	
사회과학서지	2		2		
자연과학서지		2	2		
아동도서	2		2		



4 학 년	민 고	속 고	학 학	2	2	2	2
합 계						86	

※ 成大學則. 附敎課課程表. 1966. pp. 53-55.

#### ④ 成均館大學校

##### ㉑ 學部 圖書館學 課程

1964년에 設置되었으며 入學資格은 다른 學科와 동일하다. 卒業後는 文學士와 正司書資格證이 수여된다. 그리고 敎職과목이수자에게는 社會科(일반사회) 2級正敎師資格證이 수여된다. 1968년 2월에 제 1 회졸업생 40명을 배출하였다. 이 課程의 敎科課程은 表-10과 같다.

##### ㉒ 韓國司書教育院

1965년에 1년과정으로 設立되었으며 야간과정이다. 入學資格은 研究生과 正司書 課程으로 나누며

㉓ 研究生은 大學入學資格이 있는 자로서 司書業務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卒業後는 準司書資格이 수여된다.

㉔ 正司書課程 학생은 4년제 大學卒業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卒業後 正司書資格이 부여된다.

1972년도 현재 8회에 卒業者數는 238명이며 敎科課程은 表-11과 같다.

表-11

사서교육원 교과과정표

과 목	학 점	과 목	학 점
분류 목록 I, II	6	한 국 서 지	2
서 지 학 개 론	2	아 동 도 서	2
중 국 서 지	2	도 서 선 택	3
도 서 관 사	2	고 서 목 록	2
참 고 업 무	3	관 중 별 운 영 론	2
도 서 관 운 용 론	2	주 제 별 서 지	2
비 도 서 자 료	2		
계	19	계	13

※ 사서교육원 교과과정표. 1966.

##### ㉕ 大學院課程(신설)

1971년에 신설된 대학원 과정의 교과과정은 表-12와 같다.

표-12 도서관학과 석사과정 도서관학 전공별 교과과정표

교과구분	교과목명	학 점				
		1기	2기	3기	4기	계
필수	독서지도론	2				2
	고문서강독 I	2				2
	일본도서세미나 I	2				2
	학교도서관세미나	2				
	대학도서관세미나	2				
	특수 "	2				2
	공공 "	2				
	아동도서	2				2
	참고도서세미나		2			2
	도서선택의제문제		2			2
선진	분류 및 목록의제문제		2			2
	자연과학서지세미나		2			2
	인문 "		2			
	사회 "		2			
	자료조직연습			2		2
	비교분류학			2		2
	Documentation			2		2
	근대한국주제별자료			2		2
	비도서자료세미나		2			
	한국서지학세미나		2			
필수	중국 "		2			
	고서목록법세미나		2			2
	정부간행물 "		2			
	고문서강독 II		2			
	일본도서세미나 II		2			
	한국문학사			2		2
	중국문학사			2		
	논문지도				6	6
계	10	10	10	6	36	

자료: 성대도서관학과 설치 이유서 1970. p. 3

이상에서 고찰해 본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와 先進諸國의 圖書館教育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後進性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全世界에서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文獻과 情報資料를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國家發展에 공헌할 수 있도록 近代化 教育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整理部門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우리의 現實社會가 必要로 하는 새로운 理論導入이 결여된 가운데 圖書館學 教育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專門職司書의 養成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司書란 고도한 知識을 바탕으로 하는 專門性을 必要로 함으로 美國같은 先進國에서는 본래 大學院에서 司書를 육성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發展途上에 있는 低開發國家에 있어서는 시기상조이며 大學의 圖書館學科에 依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社會制度和 認識이 아직은 碩士課程의 司書를 받아 들일 수 있는 태도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하면 5급부터 시작되는 司書의 人士職制가 시정되지 않는 한 學士出身의 司書에게도 그 격이 낮은 현제도 아래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적어도 碩士出身의 司書에게는 4級甲類에 해당하는 초봉의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단기과정의 의한 사서의 대량 양성은 스스로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됨으로 시정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碩士出身의 司書가 育成 배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나마 지방에는 必要한 司書를 養成할 수 있는 圖書館學科가 하나도 없으므로 地域社會發展에 貢獻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地方에 있는 各 大學(교)에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야 한다.

그리고 日本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情報解析 및 分析論과 컴퓨터의 조작등을 비롯한 圖書館機械化論에 역점을 두고 각 영역별로 專門職 司書가 養成될 수 있도록 合理的인 教育課程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圖書館學教育도 近代化될 수 있다고 본다.

### 제 3 장 圖書館學의 理論的 基礎

圖書館의 機能은 어떠한 본래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은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며 무엇을 基礎로 해서 選定되고 조직되어야 하며 누가 그와 같은 教育內容을 決定하여 實社會에 적용할 수 있는 合理的인 圖書館學教育을 實施하기 위해서 現代의 의미의 圖書館教育의 理論的 體系確立을 必要로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理論的 體系確立은 現行 教育課程의 타당성을 評價하고 그 改善策을 모색하는데 必要한 길잡이가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教

育課程에 관련된 많은 專門인 저서에는 예외없이 직접 또는 암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요소로

1. 教育目的 또는 教育目標
2. 教育內容 또는 教科
3. 學習經驗 및 方法
4. 評 價
5. 教授行政

을 들고 있다<sup>16)</sup>.

教育目的 또는 教育目標은 教育을 통하여 達成하고자 하는 行動變化를 지칭하며 知識의 理解, 知識의 應用力, 思考力, 創意力, 態度, 價值觀, 機能 등의 일반적 및 特殊行動의 變化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行動變化가 計劃인 教育活動을 통하여 達成하고자 하는데 教育課程의 重要性이<sup>17)</sup> 있다. 教育이란 이와 같이 人間行動의 變化에 作用하는 意圖의이고 組織的인 努力이므로 어떠한 行動變化를 目標로 삼느냐는 問題는 教育課程 計劃에 있어서 重要한 첫걸음이 되며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內容을 어떻게 指導할 것인가 하는 問題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타당한 教育目標을 設定한다는 일은 간단한 것이 아니며 어떠한 教育目標을 設定하느냐의 問題는 教育課程計劃에 있어서 매우 慎重하게 研究되며 決定되어야 하고 이와 병행해서 教育課程의 重要한 要素는 教育內容 또는 教科로서 어떠한 知識內容을 選定하고 어떻게 組織하느냐 하는 問題도 慎重히 고려되어야 함을 強調하면서 圖書館學에 관한 本質을 整理하여 새로운 教育課程시안을 제시하는 바탕을 마련코자 한다.

### 제 1 절 圖書館의 意義

東西洋을 막론하고 古代의 圖書館은 圖書의 貯藏庫였으며 圖書館奉仕는 學者의 著作을 간직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또한 文化의 훌륭한 저장고, 자유의 고상한 상징으로 소식의 중심으로서, 인간 문명을 著作한

16) B.O. Smith, W.O. Stanley and J.H. Sheres. Fundamentals of ouriculum Development. Rev. Ed: Newyork. World Book Co., 1957. p.3. Hilda Taha,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and practice Newyork; Har court. Brace & World Inc. 1962. p.422 및 R.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isley of Chicago Press, pp.1-2. 1950) 등이 대표적인 참고서이고 한국의 경우는 李榮德. 教育의 過程. 培英社. 1969. 9. 28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중앙교육연구소원. 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와 1967.)에 잘 나타나 있다.

17) 鄭範謨: 教育課程. 中央教育出版社, 1956. p. 245.

李榮德: 教育의 過程. 培英社. 1969. pp.136-137. (pp.154-169까지 사이에는 教育目標의 分類에 따른 Bloom, Gagne', 및 Tylen 등의 理論이 소개되었다).

著者の 努力을 保存하는 것으로 定義했다<sup>18)</sup>. 그러나 現代의 圖書館은 이런 저장고적 구실을 벗어나 모든 資料는 利用하려고 하는 여러 사람에게 提供하는 機關으로 發展해 왔다. 즉 著者の 努力의 結果인 著作을 위시하여 人間文明의 向上에 이바지 할 모든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이를 必要로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고귀한 結實을 보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中추적 奉仕機關으로 대두하였다. 이와 같은 圖書館의 用語를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西洋에 있어서 圖書館이란 用語는 희랍어와 나전어의 Librarium에서 유래된 것이다.

A) 희랍어의 Biblos는 Papyrus에서 전화된 것이다. 이 Papyrus는 권지로서 筆寫의 材料에 사용한 것으로 Biblion 즉 圖書를 나타내는 語로 되었다. 또 용기라든가 상자를 의미하는 접미어 Théke가 Biblion에 부가되어 圖書를 넣는 물건을 나타내는 Bibliothék란 말이 된 것이다.

이 말이 뒤에 그 內容이 圖書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화하고 따라서 圖書가 集合한 것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되었고 최종적으로 圖書館을 총칭하는 用語로 된 것이다. 현재 獨逸, 이탈리아, 스페인 제국에서는 Bibliothek(프랑스는 Bibliobhegue)를 사용하고 있다.

B) 나전어의 Liber는 원래 수목의 내피를 의미하였으나 이것을 건조시켜서 書寫의 材料로 사용한 것으로부터 圖書의 保管所 Librarium이란 말이 발생하였다. 또한 圖書에 관계하는 사람, 書籍商 또는 書庫를 意味하는 말로 되고 현재의 Library로 된 것이다. 이 Library란 어휘는 英美系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東洋에서는 이를 전용하고 있다.

2) 東洋에서 圖書란 말은 옛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中國의 <河圖洛書><sup>19)</sup>에 그 根源을 發하고 있다한다. 圖는 물건을 그린 현상이고 書는 竹簡木編이나 錢사에 筆한 것이다. 圖와 書가 합하여서 오늘의 소위 圖書가 된 것이다. 이 圖書를 수장하는 곳으로 近世 以前의 東洋에서는 비록 일정한 名稱이 없고 一般의으로 冊을 간직하는 곳의 고유명사 끝에 石室, 府, 庫, 閣, 館, 院, 觀, 樓, 堂, 齋, 室, 亭, 등을 붙이었다. 이를테면 奎藏閣, 興雲閣, 書籍院, 閱庫館, 우함루, 春坊齋 등과 같이 사용했다<sup>20)</sup>.

18) Sharma, Jodgish Saran, Substance of Library Science. New York Asia Publishing House, 1966. p. 2.

19) 河圖는 북의시 향하에서 나온 용마의 잔등에 써 있었다는 그림이며 洛書는 우가 홍수물 치수했을 때 낙수에서 나온 신구의 등에 있었다는 것이다. 伏羲는 하도에 의해서 八卦를 그렸고 禹는 낙수에 의해서 9類 즉 洪範九疇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20) 한국도서관협회편 : 도서관 실무편람, 1966. p. 11

이렇게 西歐語나 中國語에 있어서 現實의이나 具體的으로 冊의 所藏을 意味하는 뜻에서 發生한 것은 圖書館의 性격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圖書館은 그 語意로 보아서는 圖書를 保存하는 것에서 出現하여 점차 圖書가 축적됨에 따라 이를 利用하기 위해 처리의 방법이 고쳐지고 소규모적으로 혹은 특수층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歷史的 發展과 함께 利用者의 利用目的도 자연히 確立되고 圖書館의 本質과 그 機能을 올바르게 認識하게 되었으며 圖書館에 대한 定意 그 자체도 發展의인 면으로 集約되어 왔으며 美國圖書館協會의 정의에 의하면<sup>21)</sup>

1) 圖書館이란 閱覽, 調查, 研究를 위해 整理 管理된 圖書 및 유사한 資料의 蒐集

2) 도서 및 유사한 資料의 閱覽, 調查 및 研究를 위해 整理 管理되고 있는 방 또는 建物이다 라고 너무 기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Encyclopedia Britannica<sup>22)</sup>에서는 『圖書館은 研究와 調查 또는 一般讀書 目的을 위해 편성된 資料의 蒐集 장소이다. 많은 圖書와 Film, Microfilm, 寫眞, Record, Slide 등과 書寫 및 印刷된 資料라는 用語에 속하는 동류의 資料의 蒐集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資料의 蒐集에 重點을 두고 定義하고 있다.

3) 韓國圖書館協會는 이를 『圖書館은 圖書 및 그와 유사한 資料를 수집 정리, 보관하여 독서, 조사, 연구, 참고, 취미, 오락에 이바지 할 目的으로 組織運營되는 시설이다』<sup>23)</sup>라고 하고 있다.

## 제 2 절 圖書館學의 定義

近代의 圖書館學이 Gottingen 大學과 Columbia 大學에서 비롯한지 근 10여년동안 圖書館學에 대해 이것이 科學(학)이나, 藝術(기술)이나 또는 科學과 藝術이나 圖書館經營이나, 상식이나<sup>24)</sup> 등 理論이 많았다. 이와 같이 理論이 많은 圖書館學이 學으로 成立된 오늘날 그 定義를 살펴볼 때 실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圖書館學은 무엇인가? 學 또는 學問에 대해 現代의 哲學의 表現을 빌리면 學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體系的으로 組織된 知識의 총체이며 그 內容은 時代와 함께 變化 진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定意하고 있다. 요컨대 學問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어서도 知

21)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lossary of Library of Terms Chicago. 1943)

22) Encyclopedia Britannica. Chicago, 1958. vol. 14

23) 도서관용어집. 한국도서관협회. 서울. 1966. p. 31

24) Sharma, Jagdish: Saran., op. cit., p. 1

識 및 認識의 行爲이며 그 성과인 것이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事實, 새로운 意味, 近代의 원리를 통해서 이미 認識 效果를 나타내고 있는 人類의 知識을 증가하고 수정하고 능가하여 더 한층 그것을 초월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個個의 學問은 그 對象과 認識의 方法과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 獨立의 學問으로서 成立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論法에 의하면 圖書館의 問題도 자명하여지며 圖書館學이란 圖書館을 대상으로 하여 體系의 組織된 知識의 綜合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본다<sup>25)</sup>. 즉 1957년에 刊行된 Ranganathan의 The Five Law of Library Science 제 2 판에서 “科學에 의해 明確히 된 法則이나 原理가 그의 活動的 構造에 나타난다면 技術은 生命있는 法則이 된다. 이런 意味에서 Librarianship의 技術도 또한 科學으로 되는 것이다. 科學을 自然科學과 社會科學으로 대별하고 社會科學에는 教育學,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法學 등이 포함되며 圖書館學도 또한 社會科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다<sup>26)</sup>.” 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圖書館學은 社會科學의 體系에서 論하게 된다. 즉 圖書館學은 社會的, 教育的, 文化的인 기능으로서의 圖書館을 研究 對象으로 하는 것이므로 社會科學의 한 범주에 속하는 學問이라 할 수 있다. 즉 圖書館學은 재래부터 學問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말하는 經驗的, 實驗的, 인과적 方法에 의해서 社會現象으로서의 圖書館의 教育的, 文化的 機能을 說明하려는 데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종래의 圖書館學에 대한 研究는 圖書館管理法이나 圖書館經營法 등 技術을 주로 한 것이었다. 圖書館에 대한 科學的 研究는 이런 단계를 탈피하여 오늘날까지의 技術面만이 아니라 새로운 學問的인 영역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體系化 될 必要에 直面하게 되었다. 즉 圖書館存立의 客觀的인 社會的, 教育的, 文化的 原理를 추구해서 이것에 의해서 좀더 고차적인 새로운 圖書館의 奉仕活動을 展開하는 基本的인 知識이 要求되는 것이다.

圖書館學은 이러한 科學的인 근거에서 圖書館 現象을 對象으로 해서 理論的인 研究나 技術的인 研究를 행하려는 것이다. 소위 圖書館의 科學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이 現在 圖書館學이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代表的인 정의를 열거하면

- 1) 美國에서는 圖書館學이란 印刷 또는 書寫된 記錄類의 認識蒐集 利用

25) 大佐三四五: 前掲書. p. 2

26) 石塚正式: 前掲書. p. 16

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다<sup>27)</sup>.

2) 英國에서는 圖書館이란 蒐集, 保管, 組織 그리고 記錄된 傳達의 利用이다 라고 定意하고 있다<sup>28)</sup>.

3) 도이칠란드에서는 圖書館學은 廣意로 말하면 圖書館에 관한 理論과 아울러 技術의 總和를 계통적으로 질서를 세운 것을 의미한다<sup>29)</sup>.

4) 中國에서는 圖書館學의 대상은 圖書館이며 圖書館員은 圖書館의 組織 및 그 사무의 內容과 方法의 科學을 研究하는 것이다<sup>30)</sup>.

5) 日本에서는 圖書館管理 및 그 內容物的 管理와 그것에 관련하는 事務에 대한 知識과 技術이다. 즉 圖書館經營 및 書誌活動의 學問이다<sup>31)</sup>.

6) 韓國에서는 圖書館學은 印刷 또는 수서된 文獻을 認識하고 蒐集, 整理, 組織, 運營하는 知識과 技術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2)</sup>.

7) Susan Grey A. Kers 여사는 North Carolina 대학 도서관학교장 시 “圖書館이란 사람들의 여러가지 요구 즉 종말에는 社會의 進歩에 대해서 貢獻할 수 있는 要求에 응해서 정보와 영감을 가져오는 資料를 각방면, 각 종류에 걸쳐서 蒐集, 保存, 利用을 가능화하기 위해 필요한 知識과 技術을 集成하는 하나의 綜合科學이다”<sup>33)</sup>라고 말했다.

이 이외도 각 사건에 의하면 “圖書館學은 人類學問의 일부분 형성하고 계통을 가지는 科學的 方法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오로지 人類의 知識, 學問 및 일체의 동태를 研究하고 이것에 유래하여 오는 것을 記錄한 圖書資料의 保存과 응용이며, 이것으로 하여금 教育化, 社會化, 科學化 하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述하였다.

환언하면 科學的 方法을 가지고 圖書館에 관한 모든 사항을 研究하는 學問임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3 절 圖書館學의 展開와 問題點

이와 같은 圖書館學의 諸問題를 검토해 볼 때 여러학자들이 주장하는 各理論은 時代의 變遷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으며 어디에다 역점을

27)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Op. cit. 1943. p. 80

28) Landau, Thomas. ed. Encyclopedia of Librarianship. London, Bowes & Bowes Publishing 1958. p. 171

29) Megers Grosses Conversation Slexicon Leipzig. 1906

30) 椎石文郎, 도서관개론, 동경, 학예도서주식회사 1960. p. 4

31) 植村長三郎, 도서관학, 서지학사전, 유린당인쇄주식회사. 1967. p. 337

32)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용어집. 서울. 1966. p. 31

33) 임준순: 도서관학의 정의에 대하여 도서관학회지, 연대도서관학회. 1967. p. 79



두느냐에 따라서 각기 그 주장을 달리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洪水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文獻情報의 신속한 組織管理와 적기의 奉仕를 위한 圖書館教育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世界潮流에 의한 새로운 情報理論과 圖書館機械化論을 導入하게 됨으로 圖書館學科의 名稱도 ① 圖書館·情報學科 ② 圖書館·書誌學科 ③ 圖書館·도큐멘테이션 등과 같이 다양성을 띄게 되었다. 이것은 現在の 圖書館學理論에 새로운 科學技術을 어떻게 展開시켜 圖書館教育을 現代化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명칭도 각기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미 日本의 慶應義塾大學 같은데서는 『圖書館·情報學科』<sup>34)</sup>라는 名稱을 사용하여 대담하게 情報理論을 教育課程에 반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圖書館學科도 現在 使用하고 있는 名稱의 타당성여부가 앞으로 論議 되어야 할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그리고 바람직한 圖書館學教育이 실시될 수 있도록 새로운 圖書館學理論을 適期에 供給해 줄 수 있는 方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圖書館學에 대한 물이해를 圖書館學者가 理解시켜 理論의 심층화와 書誌의 分析理論의 進行 및 機械檢索 등이 도큐멘테이션에 依存하게 됨으로 이에 대한 諸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서는 教授陳의 科學技術과의 協同研究에 의한 社會的貢獻을 도모하여 圖書館에 대한 科學的知識을 높이고 圖書館學 자체의 체질개선에 매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圖書館學의 傳統的인 定義는 역시 圖書館業務內容과 그 現象을 研究의 對象으로 한다고 하는 圖書館學의 現象論이며 그것이 定義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圖書館學의 意義와 目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圖書館學이 圖書館에 관한 科學이라고 한다면 圖書館의 意義는 學術과 文化의 창달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였으므로 圖書館學은 學術과 文化의 창달을 위한 조건조성의 원리 및 그 체계와 方法을 研究하는 과학<sup>35)</sup>인 것이다. 이러한 정의가 客觀적으로 수긍된다면 現在 美國의 各圖書館學科 Curriculum에서는 哲學的 研究課程이 必須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東洋에 있어서는 書誌學과 情報科學이 圖書館學 안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體系로서 형성 되어야 할 것이다.

34) 慶應義塾大學要覽：圖書館，情報學科要覽，昭和 45—46年度

35) 정필모, 도서관학의 새로운 체계, 중대논문집, 제 14집, 1969, p. 87

## 제 4 장 現行 大學圖書館學科 教育課程의 實態

## 제 1 절 教育目標

바람직한 教育目標의 설정은 哲學의 理念·社會의 必要의 分析 학생의 요구진단·大學機能의 결정 및 各 學問 영역에서의 요청 등에 그 基礎를 두어야 한다.<sup>36)</sup> 이러한 准거에 의하여 各 大學의 教育目標을 보면 우리나라 教育法에 規定된 教育目標을 그대로 옮겨 놓았거나 아니면 약간의 子구수정을 가했을 뿐이다. 그러면 教育法에 定해진 目標은 무엇인가? 教育法 제108조에는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目標을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範하고 正지한 應用方法을 敎修 研究하여 시도적 人格을 도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것은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一般目標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같은 추상적인 目的만 에 의존하게 될 때 어떤 敎授는 세분된 事實적인 知識의 傳修에 강조를 두는가 하면 어떤 敎授는 基本的인 原理나 研究方法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같이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추상적인 目標만을 내세우고 있다면 大學의 教育課程에서 구체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행동특징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결국 개개의 敎授들에게 統一된 目標지향을 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教育目標은 없다는 이야기로 되고 마는 것이다.

물론 一般目標은 그런대로 약간의 추상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各 Course의 目標은 具體的이 아닐 수가 없는데도 不拘하고 大學 要覽에 紹介된 것을 보면 어떠한 理論을 紹介 한다든가 어떠한 知識을 理解시킨다는 정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우리나라 大學의 거의 全部가 敎科組織이나 敎授文法의 指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明確하고도 具體的인 教育目標을 作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大學教育의 全體目標·敎養課程의 目標 進공과정의 目標 및 영역별 혹은 科호스별 目標은 하나의 뚜렷한 一관성을 가지고 具體的으로 표시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教育課程 計劃과 운영에 관한 教育目標은 항상 出發

36) 대학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중앙교육연구소 1967. p. 30.

教育目標設定에 관한 내용은 李榮德氏가 現代教育叢書 第一卷, 教育原理中 第15章 “教育課程” pp. 208—201, 理代教育叢書 第5卷, 教育課程中 第9章 “教育目的設定 및 教育의 過程, pp. 148—153에 잘 나타나 있다.

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단계의 계획과 運營에 具體的인 指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全體 教育目標은 教科課程 全體 構造를 決定하는 指針이 되는 동시에 더 나아가 教養 및 專攻課程의 目標도 보다 具體的으로 첨부되어야 할 것이다. 教養 및 專攻課程의 教育目標은 다시 科目選擇과 組織의 指針이 되어야 하며 學科目標들은 보다 具體的인 行動言語로 表示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타당한 教育目標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이유와 결정된 教育目標은 教授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까지 명확하게 이해되고 수용되어 教授活動 및 學習活動에 일관성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모든 교수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교육목표의 설정과 개정, 또는 재확인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각 대학(교)에 촉구한다.<sup>37)</sup> 그리고 目標設定過程에 학생들이 直接的으로 參與하는 問題는 좀 더 研究되어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그들의 代表的인 意思는 教育目標를 設定 할 때에 充分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각 大學圖書館學科의 目標은 어떠한가?

大學校에 設置되어 있는 각 圖書館學科의 目標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동소이한 教育目標를 나열하고 있는 現實로서 韓國의 圖書館學 및 圖書館事業을 개척하기 위한 사명과 의욕을 가지고 설립된 圖書館學科는 圖書館學의 知的인 수준을 높이고 實習 및 見學을 통하여 實際的인 技術을 習得시키므로서 圖書館의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유능하고 의욕적인 司書 養成을 目標로 하고 있다.<sup>38)</sup> 그 目標가 明示되어 있을 뿐이며 그 具體的인 內容은 술어의 나열에 불과하여 앞에서 고찰한 一般目標의 추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교육목표에 관한 조사에서 얻어진 결론은 표-13과 같다.

표-13 大學圖書館學科에 對한 目標意識

항	목	반 응 수	비 율(%)
아주 명백히 서 있다		29	22.6%
별로 명백히 서 있지 못하다		57	44.5
아주 모호하다		38	29.7
무 답		4	3.2
계		128	100%

37) 大學教育內容에 關한 綜合的인 研究, 上揭書, p. 46

38) 延大·梨大·中大·成大的 각 大學要覽을 분석종합한 것.

학생들의 目標意識이 희박한 원인으로서는 大學自體의 目標와 科目들의 目標가 具體的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 자신의 必要와 大學과 一般 社會와의 유대의식과 연결성이 불투명한 양상등도 그 원인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표-14 大學圖書館學科의 基本目標를 決定하는데 도움이 된 것은

항	목	반 응 수	비 율(%)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21	16.4
선배와 친구의 지도		30	23.4
그럭저럭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44	34.4
고교시절의 진학지도		11	8.6
기	타	18	14.0
무	답	4	3.2
계		128	100.0

우리는 여기서 비록 21명 (16.4%)에 불과한 일부의 학생들이 大學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目標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本格的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目標意識이 뚜렷한 學生數도 증가할 것이므로 各 大學은 大學要覽을 나누어주거나 추상적인 入學式場에서 행하는 혼시조의 方法을 지양하고 教育目標를 充分히 理解하고 받아들여 教授와 學習活動에 反映될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되어야만 目標의식이 결여된 가운데 大學生活을 하는데서 오는 教育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教授協議會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教育目標의 재인식을 위한 研究檢討와 新入生에 주는 本格的인 오리엔테이션의 마련을 위한 길을 摸索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제 2 절 教育內容

### 1) 全體課程의 組織形態

우리나라 教育법시행령 제126조에는 “.....대학에 있어서는 매학년 40학점을 취득함을 기준으로 하되, 매학기 24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大學의 卒業, 또는 그 豫科의 修了에 必要한 學點은 전항의 기준학점에 그 수업년한을 승하여 얻은 學點數를 한다”고 하여 卒業에 필요한 총 學點數를 160학점으로 規定하고 있다. 총 160학점 중에서 教養課程 專攻課程 및 選擇課程의 비율을 보면 教養必須科目은 평균 49학점, 전공 필수

과목은 82학점, 선택과목은 29학점으로 되어서 그 구성비는 약 3:5:2가 되고 있다.<sup>39)</sup>

표-15 教育課程 全體學點의 構成比率

항 목	필 수 과 목		선택과정	계
	교양과정	전공과정		
평 균 학 점 수	49	82	29	160
%	30.6	51.3	18.1	100

그러나 오늘날의 大學教育의 性格과 機能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學點構成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검토가 따라야 하며, 대학의 일부나마 系列別모집을 통한 부전공제활용과 학점의 140학점추진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教育課程이 教養(31%), 전공(51%) 및 선택(18%)의 구성 비율을 外國의 경우와 비교해서 볼 때 美國의 代表的인 大學에 있어서는 총 120학점중 教養이 50~54%, 전공이 33~38%, 선택이 18~20%이며, 체육이 4%로 되어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 124학점중 교양이 35%, 전공이 62%, 체육이 3%로 되어있다.<sup>40)</sup>

우리는 전체과정이 교양과정(체육제외)이 35~40%, 전공과정 40~50%, 選擇課程이 15~20% 및 體育이 3~5%의 비율로 구성될 것을 건의한다.

표-16 各大學圖書館學科 學點의 構成分布圖

학 교 별	전공학점 수	전체학점 수	구 성 비율%	비 고
연 세 대 학교	78	160	48.7%	연 세 요 램 1961.PP187-189
이화여자대학교	87	160	54.4"	대 학 안 내 1966.PP81-4
중앙대학교	82	160	51.2"	대 학 안 내 1966.PP60.
성균대학교	86	160	53.7"	교과과정표 1966.PP53-55

## 2) 教科內容

지금까지 教育課程의 外部的인 構造만을 中心으로 檢討해 왔다. 教育內容의 問題를 正確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教科組織의 外部的인 構造만을 檢討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각 교과들이 이러한 知識內容들을 담고 있는 나가 問題되어야 하고 더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學習活動에서 어떠한

39) 대학교육내용에 관한 종합적연구. 전제서. p.49. 및 대학요람을 분석하여 얻은 평균치.

40) UNESCO World Survey of Education IV. Higher Education, 1966. 참조.

知識內容이 취급되느냐의 문제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教育內容에 對한 本質的인 檢討는 完結 될 수 있는 것이다.

교과의 배열순서(엄격히 따져서 이수순서)에 대한 교수 및 학생의 반응을 종합하면 다음 표-17과 같다.

표-17 배열순서의 전도 혹은 비약부분

항	목	학 생		항	목	학 생	
		반응수	%			반응수	%
많	다	8	6.2	모 르 겠 다	20	15.6	
더	러 있 다	59	46.1	무	답	9	7.1
없	다	32	25.0	계		128	100

강좌의 배열순서가 전도되어 있거나 비약적인 부분이 “많다”는 反應은 6%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러나 “더러 있다”라는 반응은 教授들의 個別面談 結果에 의하면 약 1/2정도가 學生反應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配列順序에 잘못된 것이 없다는 反應이 25%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최소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科目配列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 등록에 있어서의 학점제한, 시간표 作成上의 問題, 教授의 不足關係 및 등록지도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實際 履修科目이 본래의 教科課程에서 決定되어 있는 科目系列을 약간씩이나마 어기게 된다는 面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8 교과목 이해성의 난이도 여부

항	목	수	%
배울 필요 없을 정도로 쉬웠던 과목		10	8.0
도움이 안된 것은 아니지만 꼭 쉬웠던 과목		34	26.5
적당했던 과목		42	32.8
어려웠으나 배울만 했던 과목		29	22.6
배우지 못 할 정도로 어려웠던 과목		13	10.1
계		128	100

“배울 必要도 없을 程度로 쉬웠던 科目”이 8.0%나 된다는 反應을 합하면 학생들이 이수한 과목들의 약 35%는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쉬운 科目들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편 “배우지 못할 程度로 어려웠던 과목”도

10.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全 과정 중 약 45%를 점하는 교과에 대한 難易度の 再評價가 필요하다.**

표-19 教科目間的 비슷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부분

항	목	학생수	비율(%)	항	목	학생수	비율(%)
답	다	13	10.2%	모	르	17	13.3
더	러	60	46.9	무	담	6	4.6
없	다	32	25.0	계		128	100

교과목에 중복되는 科目이 많다(46.9%)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教育課程이 整理 부문에만 치중한 教育을 實施하여 學生들이 科目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을 자극 유발하지 못하며 흥미를 잃어버리는데서 오는 폐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後進性을 탈피하고 近代化 過程에 必要한 새로운 文獻 및 情報理論 등을 導入하여 資料의 利用도와 國家發展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폭넓은 과목선택의 기회를 賦與해 줄 것도 要求된다.

표-20 教科課程의 포괄성 여부

항	목	학 생 수	%
필요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20	15.5
필요한 내용이 빠진것이 많다		37	29.1
빠진것이 더러있다		69	53.9
무	담	2	1.5
계		128	100

教科內容이 빠진것이 많다는 學生이 53.9%인데 반하여 充分하다는 反應이 15.5%에 불과한 것은 어딘가 우리의 教科課程에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아 이와 같은 학생들의 要求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教科課程의 改正이 要求된다고 본다.

教科內容의 構成에 있어 또다른 하나의 問題가 되는 것은 하나의 教科 또는 일련의 교과군의 內容이 特定知識 分野에 편중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한 教授 및 學生들의 反應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21

교과목 내용의 특정분야에 대한 편중여부

항 목	%		항 목	※ %41)	
	교 수	학 생		교 수	학 생
많 다	2.03	20.59	모 르 겠 다	4.81	5.88
더 러 있 다	29.76	42.57	무 답	13.12	6.67
없 다	50.28	24.37	계	100.00	100.00

교과 내용간의 상관성을 높이므로써 학생들의 學習經驗 속에 統合된 知的體系가 수립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學習經驗의 統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綜合的인 教育課程 計劃의 일환으로 各 教科內容을 再整理하는 作業이 시급히 요청된다.

제 3 절 學習指導의 實際

학생들이 가지는 學習活動의 性格을 決定하는 重要한 요인중의 하나는 指導方法(흔히 말하는 教授方法)이다. 좋은 教育目標가 設定되고 價値있는 內容이 選定 組織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떠한 指導方法에 의해서 學生들에게 學習시키느냐에 따라서 教育의 效果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이제 大學에서 취해지는 教授形態 혹은 教授方法을 편의상 “필기위주의 교수형태” “설명위주의 교수형태” “질의응답” 및 “토의중심의 교수형태” “작업·실습·연습 및 실험이 강조되는 교수형태”로 대별하여 현황을 살펴 보

표-22 教授들이 주로 使用하는 指導方法的 代表的 類型

항 목	※ 인문사회계		학생 수	%
	N	%		
필 기 식 강 의	5	2.39	18	14.0
설 명 위 주	142	67.94	69	53.9
질 의·응 답·토 의	32	15.32	12	9.3
작 업·실 습·실 험	5	2.39	18	14.0
모 든 방 법	25	11.96	11	8.8
계	209	100.00	128	100.0

※ 人文社會系 %는 中央教育研究所에서 實施한 大學教育過程에 관한 實態調査에 나타난 統計를 비교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p.72.

41) ※교수의 %는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내용을 참조인용한것이다. 1967. p.70.



기로 한다. 여기에서 유의해 둘 것은 어느 特徵 形態이든 그것이 다른 교수형태와 아주 단절되어 고립적으로 實施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討議中心의 教授形態라고 해서 筆記式의 講義나 說明히 전혀 排除될 수는 없다. 또 어느 教授活動이든지 여러형태의 특징을 약간씩은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教授活動에서 지배적인 特徵이 무엇이나에 中點을 두어 이와같은 分類를 시도해본 것이다. 표-22는 學生들이 취하는 代表的인 指導方法을 統計的으로 表示해 본 것이다.

學生들의 反應을 綜合해 본 결과 과반수(53.9%)의 教授들이 說明爲主의 講義를 하고 있으며, 14.0%(人文社會系의 2.39%와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의 教授들은 筆記式 講義에 依存하고, 質疑·應答·討議 위주의 教授方法을 채택한다는 教授가 9.3% 정도된다. 한편 作業·實習·實驗을 강조하는 教授形態를 취한다는 反應에 있어서는 學問領域의 性格上 다른 學科보다는 높은 14.0%다.<sup>42)</sup> 결국 筆記式 講義와 說明위주의 教授方法을 합쳐서 생각한다면 약 70%이상의 科目이 이러한 教授形態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校室내에서는 教授活動의 연장이 라고 할 수 있는 숙제나 기타 과제들의 性格도 아울러 分析하여 判斷의 資料로 삼기로 하였다.

숙제 혹은 과제내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23 教科進度에 대한 숙제내용의 성격

항	목	반 응 수	%
배운것을 반복연습 하는 것		43	33.59
책의 한 부분을 읽고 요약 하는 것		19	14.84
참고서 자료를 읽고 종합 하는 것		24	18.75
창의성과 응용력을 살려서 연구하는 것		37	28.91
무	답	5	3.91
계		128	100.00

숙제내용의 성격으로서 가장 지배적인 것이 배운것을 反復練習하는 것(35.59%)이 가장 많고 “冊의 한 部分을 읽고 要約한다”는 과제를 “參考書 資料를 읽고 綜合하는” 과제와 합쳐서 생각한다면 약 34%가 된다. 결국 반 혹은 그 이상의 숙제는 이러한 反復 要約活動 혹은 綜合活動을 위

42)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조사한 1966. 조사통계에 의하면 인문사회계 2.4% 이공계 16.8% 의약계 1.75%로 나타나 있다. p. 72.

주로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창이성과 응용력을 살려서 연구하는” 과제가 28.9%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결국 教授方法과 과제의 양자가 다 같이 고등적인 기능을 배양할만한 충분한 機會를 학생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大學教育의 제1목표인 “學術의 심오한 理論의 研究”를 위해서는 단순한 學習活動의 능력이 아니라 分析力·批判力·綜合力·問題解決 및 創意性 등을 포함하는 고등정신 기능이 必要한데 現在의 諸般教授 方法과 學習活動의 대부분은 이러한 教育目標에 合致되지 못한다는 結論을 내릴 수 밖에 없다.

표-24 學科授業에 있어서의 學生들의 參與기회 여부

항	목	수	%
학생참여를 권장하는 일이 많았던 과목		57	44.53
“ “ “ 별로 없었던 과목		59	46.09
“ 오히려 억제 하였던 과목		12	9.38
계		128	100.00

學科領域의 特殊性에 따라 學生參與를 적극 권장해야 되에도 不拘하고 46.09%가 별로 參與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입식 教授方法에 의한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억제한다는 反應이 9.38%인 것은 시설부족으로 學生들이 充分히 實習活動에 임할 수 없었다는 結果가 아닌가 본다.

표-25 教材·教具·施設 및 參考圖書의 確保상황

항	목	교 재 · 교 구		시 설		참 고 도 서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아주 충분하다		5	3.90	7	5.47	2	1.56
대체로 충분하다		25	19.54	21	16.41	13	10.16
보통이다		32	25.00	39	30.47	20	15.62
대체로 부족하다		43	33.59	46	35.94	52	40.63
아주 부족하다		21	16.41	10	7.81	33	25.78
무 답		2	1.56	5	3.90	8	6.25
계		128	100.00	128	100.00	128	100.00

學生들의 反應은 “대체로 또는 아주 충분하다”는 학생(3.90%, 5.47%, 1.56%)에 비하여 “대체로 또는 아주 불충분 하다”는 학생(33.59%, 35.94%, 40.63%)이 훨씬 많다. 무엇보다 參考圖書의 不足을 느끼는 學生이 많

다는事實은 現在 各 大學圖書館에 구비되어 있는 도서의 양적 부족은 물론 질적·불량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증으로는 표-28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圖書館 圖書들이 “매우 參考가 된다”는 학생 16.41%보다 “어느程度 參考가 된다”는 학생 (50.0%)이 比較的 많은 편이긴 하나 “별로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학생 (29.69%)도 적지않은 사실을 指摘할 수 있다.

표-26

圖書館 參考圖書의 參考程度

항	목	반응수	%	항	목	반응수	%
아주 많이 참고된다		21	16.41	무	답	5	3.90
어느 정도 "		64	50.00				
별로 참고되지 않는다		38	29.69		계	128	100.00

학생들의 個別學習을 促進하고 일반적인 教授活動의 效果를 增進시키는데 必要한 最少限의 圖書·教具 및 諸般施設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圖書館이 校室學習의 연장으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최근의 文獻들을 具備하는 한편 參考圖書 전반의 質과 量을 시급히 向上하여야 할 것이다.

外國書籍의 購入도 必要하나 學生들의 能力을 고려하여 國內圖書의 빠짐 없는 確保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各 科目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代表的인 參考書 1~5種은 최소한 受講生 1~5人當 1권의 비율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부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만큼한 부수의 구입이 不可能하다면 參考書의 일부(필요한 부분)나 專門雜誌의 해당 論文을 必要量대로 再生한다는 것도 한 方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經驗에 의하면 간단히 講義內容의 骨字만을 말로 혹은 혹은 판에 적어주는 정도가 대부분이고 그것까지도 하지않는 教授도 더러 있다 는 점이다. 學校당국의 要請으로 講義要目 계획표를 敎務處(課)에 제출하는 大學은 많지만 (이것은 文敎部指示에 의하는 것임) 그 內容은 간단한 內容骨字의 나열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學習指導의 구체적인 길잡이 (教授 및 學生을 포함)가 될만한 구체적인 講義要目を 준비하는 科目은 극도로 제한된 狀態에 있는 것이다.

學生들의 計劃性 있는 學習活動을 도움기 위해서는 各 科目 受講에 있어서 指針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講義要綱이 作成 提供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講義要綱은 細分化된 구체적인 學習目標의 明示·嶄新하고 體

系화된 學習內容, 바람직한 學習活動, 豊富한 參考資料 및 圖書의 紹介·評價計劃등의 實質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具體인 內容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各 大學(校) 要覽이나 기타 刊行物로 紹介되는 教科課程에는 科目名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梨花女子大學校·延世大學校 要覽에는 各 科目에 대한 內容紹介가 되어 있음). 各 科目의 性格·內容 등도 간략히 소개해 줌으로써 在學中の 學業目標와 이에 따르는 受講科目의 決定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 要請된다.

#### 제 4 절 教育評價

教育目標가 얼마나 達成되었느냐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評價의 意義가 있다.

즉 學習을 통해서 學生들에게 나타난 行動變化의 證據를 목표에 비추어 評價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評價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첫째, 教育目標가 具體的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目標가 아무리 細分되었다 하더라도 評價方法이나 道具 자체가 타당하고 信賴性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로, 評價된 結果는 教育課程 및 學習指導의 向上을 위하여 充分히 活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이와같은 評價에 관련된 증거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 大學들의 評價活用은 많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教育目標의 현황에서 지적 되었듯이 目標自體가 模糊하게 진술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評價할 것이냐 하는 基本 方向도 흔들리고 있다. 다시 말하면 評價의 基礎가 될 基準이 처음부터 分明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미 정한 教育目標의 達成도를 얼마나 正確히 評價 했느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공연한 수고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가능한 是正方案을 摸索해 본다는 意味에서 評價를 위한 基本原理에 비추어 현황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평가를 위해서 취해지는 방법이나 사용되는 척도(주로 시험문제)가 目標 達成도를 옹계, 그리고 빠짐없이 評價할 수 있는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다. 各 分野의 教授들과 面談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필검사(고사) 1 회

43) 金濠權, 教育課程評價의 한 傾向, 韓國教育學會, 교육과정 연구회 Newsletter, 1968, 第1卷, 第1號, pp.3-7.

M. Scriven,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in Perspectives of Cunniculum Evaluation. AERA Monograph Series on Curriculum Evaluation, 1967.

· 李榮德, 教育의 過程, 前掲書, p.277.

혹은 2 회와 出席상항으로 성적을 낸다”는 教授가 약 70% “論文 혹은 課題만으로 成績을 낸다”는 교수가 약 25% 나머지 약 5%의 教授들은 學習活動의 觀察·課題 및 作品分析·試驗·口頭試驗·發表등의 綜合的인 評價方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評價方法의 지배적인 것은 ① 紙筆檢査 ② 論文 혹은 양자를 합친것으로 되어 있다<sup>44)</sup>. 評價는 단순히 紙筆檢査만으로 혹은 論文評價만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양자를 합쳐서 한다고 해도 人間行動의 全領域을 評價하는 方法으로서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評價方法이 한 두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 인정하기는 곤란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大學 教授들에게 다양한 評價方法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기대하기는 現實的으로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삼고 싶은것은 紙筆檢査나 論文 혹은 課題評價의 범위 안에서나마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주어진 考査問題 자체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學習된 지시 내용을 답안지에 재생시키게 하는 소위 기억된 정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대부분이고 分析力, 批判力, 一般化能力 등 學問的 眞理 탐구에서 보다 가치있게 여겨지는 知的能力을 측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方法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活動測定的 評價란 그리 용이한 것은 아니고 評價技術에 대한 專門的인 教養이 必要하다. 그러나 정확한 (혹은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 出題傾向이 學生들의 學習方向에 주요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綜合的인 教育目標의 達成度를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길은 꼭 摸索되어야 하는 것이다.

外國의 경우 專門的인 教育評價室을 두어 제반 教育評價의 계획과 실천의 향상을 위해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시되고 있다<sup>45)</sup>.

평가방법과 정도의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지켜질 것을 제안한다.

첫째, 教育目標를 具體的으로 명료하게 표시하여 무엇을 教授하고 따라서 무엇을 評價할 것인가를 分明히 해두어야 한다.

둘째, 紙筆檢査단의 方法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그리고 必要에 따라서

44) 이상의 %는 중앙교육연구소에서 1966년에 발행한 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것을 참조 인용한 것이다. p. 81.

45)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Idea and Practice of General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pp. 273—281.

宿題物, 平素學習活動의 觀察, 作品分析, 口頭試驗, 發表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評價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 紙筆檢査의 內容에 있어서 學習된 教科內容을 包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하며, 한편 知的能力에 있어서도 知識의 記憶정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應用力, 批判力, 分析力 및 創意力 등 고차적인 知的能力을 측정할 수 있는 問題作成을 위하여 特別히 努力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評價結果는 學生들에게 알려주고, 學籍簿에 記入되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學生들의 個別的 指導와 教授活動의 부단한 改善을 위하여 活用하여야 한다.

누가적으로 기록된 평가 결과는 계속적인 학생지도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수시로 검토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이 평가의 개선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전담하는 조직화된 기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 보았으나 調査에 의하면 4개 大學 가운데 하나도 없는 실정이므로 각 大學은 大學의 評價活動을 綜合的으로 관리하며 教授들에게 評價에 관한 지원과 조인을 제공하는 專門的인 評價機構를 上設할 必要가 있다. 이 機構는 教育課程 전담기구의 일부로서 포함되어도 좋을 것이다.

### 제 5 절 教 授 行 政

教科課程이 일단 選定 組織된 다음에도 이의 質적인 向上을 위한 研究가 계속되지 않으면 大學教育의 참다운 成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教科課程의 改善은 教授各 個人의 個別的인 努力이나 研究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全教職員의 직접 혹은 간접적인 參與하에 專門的인 研究를 進行할 必要가 있으며, 이미 설치된 대학의 그 사용 명칭도 「教科課程 審議委員會」 「教科課程 研究委員會」 및 「教科審議會」 등 다양하며 大學에 따라서는 教授會議에서 이를 담당하는 데까지도 있다.

표-28

교과과정에 대한 의견반영

항 목	반응수	%	학 목	반응수	%	
공식적인 기구나 협의 의를 통하여 반영됨	13	10.16	의견을 표시해 본 일 도 없음	42	2.80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표시하여 반영됨	9	70.03	무	답	2	1.56
의견표시했으나 거의 반영되지 않음	62	48.45	계	128	100.00	

教科課程의 改善에는 專門的 研究活動이 必要한 것은 물론 教科書의 개폐나 學點의 증감등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法規上 및 學則上의 융통성도 매우 중요하다. 연구결과 改善해야 할 部分이 發見되었다 해도 法規나 學則의 제약으로 인해서 이를 充分히 반영시키거나 시도해 볼 수 없다면 教科課程의 實質的인 改善은 不可能하다고 본다. 본 研究中에 實施된 教授들의 면담 結果를 보면 法規상의 제약을 지나치게 받고 있는 것 같다.

“科目的 開設·廢棄나 學點增減이 용이하다”는 教授는 불과 29.39%인데 반하여 용이하지 않고 教科課程改善에 충실을 기할 수 없다”는 교수가 무려 61.74%나 된다<sup>46)</sup>.

학교에 따라서는 법규나 학칙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과목명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을 바꾸어 教授하는 예까지 있다.

현행 교육법시행령 제125조에는 教養課程에서 이수해야 할 구체적인 科目名까지 밝혀져 있으며 專攻科目도 文敎部長官의 승인하에 開廢가 可能하도록 되어 있다. 한 나라의 高等教育을 담당하는 기관이 具體的인 內容面에서까지 제약을 받는다면 自律的으로 特色있는 教育을 실시하기는 어렵게 된다.

그러나 법규상의 제약은 비단 과목의 개폐나 학점증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학기제를 4학기제로 시도해 본다거나 行政單位의 學科制를 교수단위로 바꾸어서 教科課程의 運營改善을 위한 제반 實驗課程을 자유로이 가질 수 있는 行政上의 융통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程度가 못한 실정이다.

일선에서 몸소 이 問題에 當면하고 있는 敎務處(課)장들 역시 과목개폐나 運營面에 관한 법규나 學則上의 細部規定이 융통성있게 改定되어야 할 必要를 強力히 주장하고 있다.

46)

## 과목개설 폐기의 난이성

항	목	반응	%
쉽게 이루어지며 교육과정 개선에 충실히 기여함		159	29.39
쉽게 이루어지지만 무원칙하며 교육과정 개선에 기여하지 못함		66	12.20
쉽게 이루어 지지 못함		268	49.54
무	답	48	8.87
계		541	100.00

대학 교육 내용에 관한 종합적 연구. 중앙교육연구소. 1967. p. 93.

大學 敎育課程과 관련된 法規上의 제반 細部規定들은 敎科課程改善을 위한 開設·廢棄 및 學點增減을 自由로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融通性 있게 개정되어야 하겠다. 특히 現行 敎育法시행령은 “專攻科目과 敎養課程을 두며, 科目名 대신 關係영역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 영역에서 취득해야할 學點數(10~15)도 範圍로 제시하므로써 融通의 余裕를 둘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각 大學이 敎科課程運營을 改善하기 위한 제반 실험을 시도 할 수 있는 法規上의 融通성과 文敎當局의 行政의 지원도 요망된다.

그리고 學年間 및 敎科間의 지나친 벽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1) 專攻 領域別 共通科目의 數를 늘여 科目間의 共通分野를 확장하는 일 (2) 學科 單位의 교수임면 방법을 지양하며 담당영역 단위의 임면제를 채택하는 일 등의 수립은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시정방안이 될 것이다.

표-29 수강후에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과의 일치성 여부

항	목	반응수	%
	기대했던 내용과 같은 과목이 많았다.	41	32.03
"	약간 다른 과목이 많았다.	52	40.63
"	는 상당히 다른 과목이 많았다.	17	13.28
무	답	18	14.06
계		128	100.00

受講後에 學生들은 어딘가 모르게 敎科內容에 만족하지 못한다(54.9%)고 하는 것은 반성의 여지가 있다.

그 원인을 규명하여 敎授와 學生이 本來의 의도한 내용을 이수도록 해야 된다.

표 30-㉠ 당신은 과목 선택지도를 받은일이 있습니까?

항	목	반응수	%
	받은 일이 있다	42	32.8
	받은 일이 없다	86	67.2
계		128	100.0

표-30-㉡ 지도를 받았다면 그 도움은?

항	목	반응수	%
	많은 도움이 되었다	49	38.28
	신통치 않았다.	79	61.72



계	128	100.00
---	-----	--------

표-30-◎ 지도를 받은 일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항	목	반응수	%
받을 필요가 없어서		21	16.40
지도해 주는 교수가 없어서		42	32.81
지도 받아도 신통치 않다고 해서		37	28.91
어디가서 지도 받아야 할지 몰라서		26	20.31
기	타	2	1.57
계		128	100.00

이와같은 결과는 “科目選擇 指導를 받은 일이 있다”는 학생이 32.8%에 불과한 사실을 보아도 그 이유를 이해할만 하다.

그러므로 기대했던 바와 다른 내용을 학습하게 됨으로서 학생들이 받게 되는 실망은 암암리에 그들의 학문적 성장을 좌절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각 科目의 講義 要綱(Syllabus)을 受講前學生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학교당국이 지원한다면 이러한 손실은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표-31 科目選擇에 있어서의 充分한 기회부여 여부

항	목	반응수	%
희망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다.		17	73.28
시간표상의 중복으로 희망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74	57.82
희망교과목의 이수가 비교적 가능하다고 본다.		28	21.89
무	답	9	17.01
계		128	100.00

대부분의 학생(57.82%)들이 자기가 選擇하여 履修하고 싶은 教科科目을 履修하지 못하고 있다는 反應은 學生各者가 자기 본연의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불만의 표시라고 본다.

그러므로 가급적 科目의 중복으로 인한 學生들의 受講上의 모순을 시정하여 줄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現行 學年制로 밖에 運營될 수 없는 教科課程이 學點制로 實施하는 데에는 實際의 教科運營上 여러가지 원인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점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임의 選擇科目을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취득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이상으로 教育目標의 설정을 비롯해서 內容, 經驗, 評價의 實際 및 教授 行政上의 제반 지원체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본 우리 나라 圖書館 教育課程의 實態는 허다한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다음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대다수(56.25%)가 現行 教育課程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거나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現實임으로 그 改善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표-32 現行 教育課程에 對한 滿足性 여부

항 목	반 응 수	%
만족할만 하다	12	9.38
불만이다	72	56.25
그저 그렇다	42	32.80
무 답	2	1.57
계	128	100.00

## 제 5 장 大學圖書館學科 教育課程試案

### 제 1 절 教育課程의 一般目標

지금까지 教育目標, 學習經驗, 評價를 教育過程을 記述하는 基本要素로 取扱하여 왔다. 이것은 곧 教育課程計劃과 運營은 곧 教育課程의 中心過程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教育的 過程속에서 學生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學習經驗을 총괄하여 우리는 教育課程이라고 定義하여 온 諸學說<sup>47)</sup>에 依據하여 교육과정을 學生들이 가지는 學習經驗으로 보고 教育課程시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大學圖書館學科의 教育課程은 專門教育을 받은 圖書館人으로서 共通의 으로 지녀야 할 資質인 圖書館에 대한 올바른 理解力, 正確한 言語能力, 合理的이고 批判的인 情報管理能力, 健全한 가치관 및 부단한 자기개선과 현대 사조에 적용할 수 있는 獨創力을 培養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같이 專門教育을 履修한 圖書館人이 一般的으로 지녀야 할 教育課程을 만들기 위하여 圖書館 教育의 本質과 韓國의 必要度を 광범위하게 측

47) 李榮德 : 教育의 質의 問題와 教育課程再構成. 教育과 國家發展 第12章 教育出版社. 1969. p. 293.

정하여 영역을 작성하고 그 영역내에 포함될 科目들을 서술하였다<sup>48)</sup>.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試案은 어디까지나 參考資料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 專門學科에 대한 最初의 試圖라는 점에서 그 意義가 크다고 본다.

즉 西歐의 새로운 理念과 思想을 土臺로 하면서도 그것을 批判하여 長點과 短點을 가려내고 이것을 우리 民族 우리 社會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또 어떻게 作用하여 本來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知識과 情報의 保存傳達에 關한 內容이 증추가 되어 하루 속히 改善되어야 한다<sup>49)</sup>.

그리고 여기서 밝혀줄 것은 본 시안이 현행교육법시행령에 明示된 과목과 시간에 대한 制限을 어느 정도 勘案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 제 2 절 領域 및 領域別 目標

상술한 일반목표를 達成하기 위한 내용을 선정 조직함에 있어서 우선 그 領域을 정하고 組織된 영역간의 學點과 構成比率을 살펴봄으로써 상호 영역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관점에서 본 시안을 마련코저 한다.

전공과목의 總學點數는 70학점으로 해서 전체 학점의 40~50%가 되도록 하였다.

### 1) 영역별 과목

#### ① 기초영역

圖書館, 情報學概論(3), 영서강독 I, II (6), 일서강독 I, II (4), 한서강독 I, II (4), 서지학(2) 도서관사(2).

#### ② 자료영역

도서관자료선택론(3), 정보해석론 I, II (4), 과학기술 자료개설(2), 사회과학자료 개설(2) 인문과학자료 개설(2), 아동자료 개설(2), 한국 고전자료개설(2), 중국고전자료 개설(2)

#### ③ 정리영역

자료조직법 I, II (6), 도서관자료조직특강(2), 자료조직법실습(2). 정보자료조직론 I, II (4), 비도서자료조직법(2), 고문헌조직법(2).

#### ④ 경영영역

도서관경영론(3), 정보분석관리론(3), 독서지도론(2), 대학도서관운영법 I, II (4), 공공도서관운영법 I, II (4), 학교도서관운영법 I, II (4),

48) 圖書館學科講義要目一覽. 圖書館短期大學, 昭和45年4月.

49) 李奎範, 學習指導改善을 爲한 「圖書 및 圖書館利用指導」에 關한 研究. 부산교육대학연구보고, 제6권제1호별2호, 1970. p. 18.

전문도서관운영법 I, II (4), 도서관건축론(2), 도서관기계화개론(2), 정보검색론(2), 아동도서관운영법 I, II (4).

### ⑤ 실습영역

도서관실습(1), 타자실습(1), 컴퓨터실습(1).

### 2) 영역별 학점구성비율(%)

표-33

영역	학점수	비율(%)
1 기초영역	21학점	30.0%
2 자료영역	16 "	22.9%
3 정리영역	16 "	22.9%
4 경영영역	15 "	21.4%
5 실습영역	2 "	2.8%
계	70학점	100%

그러나 圖書館學 教育이 그 本來의 基本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하나의 統合된 組織體로서 各 領域別 科目들은 상호 연관적으로 組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領域別科目들의 專門의 特性을 배제해서는 안되며 그 共通點과 차이점을 명백히 하여 目標達成課程에서 오는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지나야 할 能力의 통합을 기하기 위해서 영역별 담당교수들의 상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 제 3 절 教育課程 試案作成

#### 1) 作成상의 유의점

① 整理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圖書館學教育을 지양하고 각종 文獻과 情報資料를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는 圖書館學教育의 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하여 現實社會가 要求하는 새로운 情報解析 및 分析論 컴퓨터의 조작을 비롯한 圖書館機械化論에 역점을 둔 資料영역과 經營의 合理化에 必要한 해당 영역별 主題分野의 專門職 司書를 養成할 수 있는 教科課程이 되도록 하였다.

② 政治, 經濟, 社會, 文化, 教育의 制度和 실정에 있어서 우리의 차원이 다르고 이질적인 要素가 다분히 내포된 外國의 理論과 實際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現行教育方法을 시정하고 우리의 制度和 現實에 적합한 教育課程을 마련하여 地域社會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專門職司書를 각영역 별로 고무 育成 배출코자 하였다.

③ 학생들의 學習活動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現行 總 學點數를 140학점 정도로 줄이는 것을 전제로 하여 專攻課程의 學點數도 70학점 정도로 낮추어 學生들의 自發的인 自學自習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며, 科目選擇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現行 教育課程의 모순을 시정하여 각자의 전공영역별 및 그에 관한 主題分野의 科目選擇이 가능하도록 教科配定을 고려하였다.

④ 教授의 法定定員數 미달에서 오는 教授의 自質低下와 새로운 情報理論을 導入한 圖書館機械化에 대한 해당 영역별 科目指導의 教授가 곤란한 現實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圖書館學의 체질개선이 이루어져 본래의 教育目的을 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의 重要한 事業의 하나인 情報化事業으로서의 ① 도큐멘테이션의 體系化問題 ② 教育의 民主化에 관한 研究 ③ 教育發展 方案檢討를 위한 여러 연구의 추진 ④ 教育의 量的膨脹과 함께 質的인 심화를 위해 教育의 制度的 改革<sup>50)</sup> 등이 重要問題로 등장하게 됨을 強調한 유네스코가 「인구팽창문제와 교과과정개편」 연구를 韓國 中央教育研究所에 위탁하여 71년 10월 서울에서 「협동학교계획」 아시아지역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大學教育에 있어서도 活潑한 教科課程의 改編에 발맞추어 여기에 제시된 教科課程試案이 國家發展에 貢獻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 학부과정 전공별 교과 과정표(안)

구분	교과목명	1 학년		2 학년		3 학년		4 학년		전공·필수선택별	합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전	영서강독 I. II.		3	3						필수	
	일서강독 I. II.			2	2					"	
	한서강독 I. II.			2	2					"	
	도서관·정보학개론					3				"	
	서지학						2			"	
	도서관사						2			"	
	최저이수단위수		3	7	7	4					21
문	도서관자료선택론					3				필수	
	정보해석론 I. II.					2	2			"	
	참고자료					3				"	
	시청각자료						3			"	

50) 경향신문, 1970. 11. 30. 5면기사 참조.

교역	영역	과학기술자료 사회과학자료 인문과학자료 한국고전자료 중국고전자료 아동자료	중 1 과목						3		선 택	
	최저이수단위수							8	8			16
육역	정리영역	자료조직법 I. II. 정보자료조직론 I. II. 도서관자료조직특강 자료조직법실습 비도서자료조직법 } 중 1 고전자료조직법 } 과목						3	3	2	2	필수 " " " 선택
	최저이수단위수							3	5	6	2	16
과목영역	경영영역	독서지도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분석관리론 대학도서관운영법 I. II 학교 " } 중 1 공공 " } 과목 아동 " } 전문 " }					2					필수 " " 선택
	최저이수단위수						2	3	5	5		15
공실습	공실습	도서관학실습									1필수	1
	연관과목	타자실습 } 중 1 과목 컴퓨터실습 }									1선택	1
합계	최저이수단위수 합계			3	7	9	15	16	11	9	필수 57 선택 13	70

※ 교양학부 분리운영을 원칙으로 한 것임(단 도서관, 정보학개론은 3학년 1학기로 옮길 수도 있다).

3)

대학원과정 교과과정표(안)

교과구분	교 과 목 명	학 점				
		1 학기	2 학기	3 학기	4 학기	합계
필수	도서관·정보학특강	2				2
"	도서관학사	3				3
"	자료조직법특강	3				3
"	참고조사법특강	2				2
"	정보분석특강		2			2
"	자료선택특강		2			2
선택	도서관정보조직관리론 } 중 1과목		2			2
선택	정보처리기계화론 } 중 1과목		2			2
선택	자연과학서지론 } 중 1과목		2			2
선택	인문 " } 중 1과목		2			2
선택	사회 " } 중 1과목		2			2
선택	특수자료서지론 } 중 1과목		2			2
선택	대학도서관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학교도서관 " } 중 1과목			2		2
선택	공공 " } 중 1과목			2		2
선택	아동 " } 중 1과목			2		2
선택	전문 " } 중 1과목			2		2
선택	비교도서관학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정부간행물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비도서자료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출판문화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한국근대주제별자료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한국서지학세미나 } 중 1과목			2		2
선택	중국 " } 중 1과목			2		2
선택	일본도서세미나 } 중 1과목			2		2
필수	논문지도				6	6
합계	최저 이수단위수합계	10	8	6	6	30

## 제 6 장 結論의 要約 및 提言

## 제 1 절 結論의 要約

1) 以上에서 考察해 본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大學圖書館學 教育은 後

進性を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직까지도 整理部門에만 치중하고 있는 教育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現實社會가 要求하는 새로운 情報解析과 分析論 및 컴퓨터의 조작등을 비롯한 圖書館機械化論에 역점을 둔 資料領域과 經營領域을 合理的으로 教育課程에 反映시키므로써, 全世界에서 洪水와같이 쏟아져 나오는 文獻과 情報資料를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圖書館學教育의 近代化가 시급함을 強調하였다.

이것이 現實會社가 要求하는 가장 시급한 圖書館教育의 目標가 되어야 한다.

2) 政治·經濟·社會·文化·教育의 制度和 實情에 있어서 워낙 次元이 높고 또한 異質的인 要素가 다분히 內包된 理論과 實際를 그대로 이식시키고 있는 現行의 教育方法을 우리의 制度和 現實에 適應되도록 고치는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情報論과 圖書館機械化問題를 이에 導入시켜 綜合的인 教育課程의 始案을 提示하고, 이를 참작하여 圖書館學 全領域에 걸친 보다 包括的인 教育의 實施가 必要함을 역설하였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專門職司書를 各 領域別로 高루 育成 배출하여 地域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3) 위의 1)과 2)를 基礎로하여 각 大學圖書館學科는 現行教育制度의 결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教育課程을 마련하되, 자기대학의 圖書館學科 나름으로서의 特徵과 傳統을 이에 反映시킬 必要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말하자면 各大學圖書館學科는 綜合的이고 體系있는 教育을 實施하면서도 그 중에서 어떠한 領域에서 重點的으로 그 學科의 特徵과 傳統을 살리면서 指向할것인가를 뚜렷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학생들의 學習活動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총학점수를 140학점 정도로 줄이고, 專攻課程을 40~50%로 낮추어 학생들의 積極적이며, 자발적인 自學自習에 基礎를둔 獨창적인 主題分野의 研究活動機會를 充分히 주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그것은 專攻科目의 이수학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과목선택의 여유가 허용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각자의 전공영역별 및 그에 관한 主題分野의 科目選擇 기회를 喪失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科目選擇에 있어서는 同時에 해당 領域別選擇이 가능하도록 教科目 配定表가 編成되어야 하는데 오늘의 實情은 그렇지 못하다. 그와같은 主要原因은 各大學의 經營難에서 오는 教授의 不足으로 말미암은것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하였다.



5) 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해당 領域別教授가 法定定員數 未達로 教授의 담당영역이 많아져서 教授 그 자체의 깊이가 없을뿐더러 또한 教授의 資質을 低下시키는 結果를 초래케 했음을 지적하였다. 그 시정책으로서는 무익한 時間講師制를 시정하고 담당교수의 수를 오히려 法定定員數 보다 더 確保하여 담당영역을 좁히고, 深奧한 研究와 철저한 調査分析으로 깊이 있는 教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研究教授制度和 海外派遣教育等を 實施하여 教授의 質的向上을 積極圖謀 하여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6) 計劃性있는 學習活動을 돕기 위하여 자세한 教授概要(syllabus)를 作成해서 學生들에게 나누어주는 教授가 거의없는 실정이며, 講義內容의 骨字만을 傳達하거나 또는 板書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따라서 學生들은 履修科目의 教育目標와 그 內容構造 및 性格等에 대한 具體的인 理解가 없이 受講하게 되므로 充分한 自學自習의 指針을 가지지 못하고 學科受業에 임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시정책을 촉구하였다.

7) 評價의 改善을 위한 研究와 檢討를 담당하는 組織화된 機構가 없으므로 評價의 尺度나 그 나타난 結果를 活用할 수 없다. 그러므로 各 大學은 實際 評價象 나타나는 제반 矛盾에 대하여서도 별다른 對策없이 되풀이 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評價의 教育的 意義에 대한 理解가 不足하거나, 試驗結果를 活用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그 重要한 原因이 있다고 보고 그 是正案을 言及하였다.

8) 教育課程의 부단한 改編作業을 위하여, 國家機關에 圖書館局이나 大學教授 및 專門家에 의한 圖書館學 共同研究 또는 協議體를 組織하고 週期的인 討論과 研究로서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現代社會에 適應되도록 할 것을 提案 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近代化課業을 促進시키고 있는 國家의 諸目的을 達成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現實이 圖書館專門職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나아가서는 장래의 方向性이 무엇인가를 銳利하게 分析· 檢討하여 社會와 國家가 아쉬워하는 구심점을 포착하고 이를 圖書館教育에 反映시키도록 부단한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9) 끝으로 圖書館學科가 設置되어 있지 않은 各 大學(校)에서도, 올바른 圖書館利用과 圖書館의 各種資料(문헌)가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참작하여 圖書館學講座를 開設해서 書誌 및 情報資料의 引用能力을 量的으로 부여하는 同時에 圖書館學科가 설치되어 있는 大學(校)에서도 圖書館學科目을 教養課程으로서나 또는 副專攻科目으로 다른學科 學生들이 選擇하여 들

을 수 있는 方案이 마련될 것을 提案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과 발맞추어 지방에도 大學圖書館學科가 고무 설치되어야 하며 각 主題分野에서 書誌 및 情報活動과 奉仕를 하는 司書는 고도의 專門의 知識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專門職을 육성 배출하기 위해서는 大學院에 圖書館學科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것도 아울러 提案하였다.

## 제 2 절 提 言

1) 圖書館學 教育의 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書誌와 情報에 역점을 두는 資料領域과 經營의 合理化에 努力하여야 한다.

2) 각 영역별로 유능한 專門職司書가 고무 養成되어야만 이제까지의 자료조직 편중의 圖書館學 教育의 단점을 제거하고 각 分野別 近代化課程에 있어서 圖書館學이 지닌바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새롭고도 綜合的인 圖書館學教育課程의 改編이 자못 시급하다.

3) 본 研究에 제시된 教育課程 試案을 參考로하여 각 大學 圖書館學科는 現行 教育制度의 결함을 발견하고 새로운 教育課程을 마련 하되, 自己大學의 圖書館學科 나름대로의 特徵과 傳統을 이에 반영시킬것을 기대한다.

4) 학생들의 自發的이며 獨創的인 研究活動의 증진을 위하여 과중한 현행의 專攻科目配定을 낮추어 주고, 專攻領域別 및 그에 관한 主題分野의 科目選擇 機會를 최대한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즉 가치없는 學年制의 運營을 시정하여 학생에게 選擇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大學本然의 教育制度인 學點制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5) 學科目別 단위의 교수임면을 지양하고 담당영역 단위의 임면제를 채택하여 有能한 教授를 법정정원수 이상으로 確保하고 아울러 教授의 資質向上에 관한 專門的인 訓練과 研究教授制度를 實施하기 위한 方案의 마련이 필요하다.

6) 教育課程 改善을 위한 體系的이고, 協同的인 努力의 일환으로 學期初에 각 科目의 講義目標, 內容 및 參考圖書등을 제시할 教授概要(syllabus)를 학생들에게 提供함으로써, 受講科目의 올바른 選擇과 計劃性 있는 學習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7) 評價方法과 尺度의 타당성 및 信賴性은 올바른 評價活動에 있어서 必要한 원칙이므로 紙筆檢査單의 方法을 지양한다.

즉 評價結果가 학생들의 個別的인 指導와 教授活動의 不단한 改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專門的인 평가기구나 教育課程 進담기구를 設치할것을 제안한다.

8) 과도기적 現象에 처해있는 圖書館教育의 改善을 위하여 문교부당국에 圖書館局이나 또는 圖書館學科가 設치되 있는 4개대학(교)의 共同研究協議體를 新設하여 社會 또는 國家가 圖書館系에 要求하는 중심점이 무엇인가를 포착하여 이를 圖書館教育에 반영시키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9) 끝으로 圖書館學科가 設치되있는 대학(교)은 물론, 그렇지 못한 各대학(교)에서도 圖書館學講座를 開設하여 이를 他學科의 教養課程으로서나 또는 副專攻科目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選擇하여 들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에만 편중되 있는 圖書館學科가 지방에도 고루 設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專門職 司書를 養成·배출하기 위해서는 大學院에 圖書館學科를 시급히 設置해야함을 아울러 提案하는 바이다.

#### 참 고 문 헌

1. 임중순·도서관학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9
2. 임중순·도서관학의 정의에 대하여 도서관학회지. 서울. 연대도서관학회. 1967.
3. 박희영·한국의 사서교육(1) 도서관. 1969. Vol. 24. No. 8.
4. 대학교육과정에 관한 종합적연구:중앙교육연구소 서울. 1967.
5. 정필모. 도서관학의 새로운 체계. 증대논문집 제14집. 1969.
6. 근대화과정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 도협월보. Vol. 10. No. 4. 1970.
7. 大佐三四五. 圖書館の展開. 東京. 丸善株式會社. 1954.
8. 植材長三郎 圖書館學 書誌學辭典. 有隣堂印刷株式會社 1967.
9. 石塚正成. 圖書館學通論. 東京. 明治書院. 1966.
10. 草野正名. 圖書館の歴史. 東京. 學藝圖書株式會社. 1966
11. 도서관실무 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6
12. 李榮德. 教育의 質의 問題와 教育課程 再構成. 教育出版社. 1969.
13. 鄭範謨. 教育과 國家發展. 教育出版社. 1969.
14. " : 教育課程. 中央教育出版社. 1956.
15. 圖書館·情報學科要覽.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日本. 昭和 45~46.

16. 圖書館學科講義要目覽. 圖書館短期大學. 日本. 昭和 45年 4月.
17. 金稟權, 教育課程評價의 한 傾向. 韓國教育學會. 教育課程研究會 1968. 第 1 卷, 11 호.
18. American Library and Book Trade Annual. New York. P. R. Bowken Co. 1963
19. Lohrer Alice and Jackson. William Vernon.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Asia, the Near East and Latin America Library Trans. Vol. 8. No. 2. 1959
20. R.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0)
21. Sharma. Jogdish Saran, Substance of Library Science. New York.
2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lossary of Library Terms. Chicago. 1943.
22. Encyclopedia Britanica. Chicago. 1958. Vol. 140
23. M. Scriven, The Methodology of Evaluation in perspectives of Curriculum Evaluation. AERA Monograph Series on Curriculum Evaluation 1967.
24.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69—70. General Catalog Vol. 63 No. 9 1969. May 15.
25. 경향신문 : 서울 1970. 11. 30. 5면 기사.

## A Study on the Curriculum of the Library Science in Korea

by Boo-pil Kang

We are encountering a great numerous informations concerning literatures to rapidly organize and manage, and the necessity for education of library science has been increasing for social service at the right time. The distribution of the library materials to policy-making vital to modernization of Korea has been greatly estimated. Accordingly, at present it is very urgent for us to re-examine the curriculum in each of college library science course. Therefore, we should not repeat such a ridiculous education of library science as ten-years old one. A new way should be designed, so that students could carry out their activity of literatures, informations and services which is necessary for modernization of Korea.

Thus this essay proposes the following points; This is designed for pioneering to improve and develop the education of library science.